

[增 補 版]

[寄 贈]

羅州吳氏 始祖와 由來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

丁卯譜 族譜原典 (정묘보 족보원전)

吳 成 根 · 吳 恒 植 編著

인터넷에 게재한 원고

인터넷주소 : www.najuossi.com

검 색 어 : 나주오씨시조와 유래

羅州吳氏 參議公 宗中

화보사진

화보사진

화보사진

화보사진

화보사진

화보사진

■ 發 刊 辭

千年의 氏族史 바로 알고 守護하자

吳 成 根

(羅州吳氏十九世孫)

인간을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天賦的)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요. 금수(禽獸)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인륜적(非人倫的)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를 보듯이 미물(微物)들도 자기종족 혈통보전을 위하여 사투(死鬪)를 하는데, 하물며 인간으로서 자기뿌리 始祖와 先祖를 버리는 者和 남의 뿌리 始祖와 先祖를 침탈한 者는 미물만도 못하다. 우리 정묘보 범례에 「吳氏自三韓初號稱大族而若羅州吳氏則自進士公諱淑珪始載家勝」 오씨는 삼한 초부터 대족이라, 일컬었는데 나주오씨는 진사공 휘숙규를 가승에 처음으로(맨 앞에)기록하지만… 범례와 같이 우리는 삼한 때부터 羅州거주 羅州오씨 羅州人이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는 구전(口傳)은 전설에 불과하므로 천년전의 일은 千年前 고대사 문적(文蹟)으로 밝히는 것이 옳으나, 古代史가 없으므로 나주오씨 정묘보, 보성오씨 병술보, 해주오씨 정해보 원전(原典)을 근간으로 사실을 규명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고 初刊冊切版으로 구독희망자에 증정하고자 미진한 것을 증보(增補)하여 증보판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네티즌을 위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원고도 증보 수정 하였으니, 공람하시고 소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2012년 5월 일

目 次

○ 화 보	
○ 발간사	1
○ 목 차	2
○ 머리말	3
1. 나주오씨족보(原譜) 정보보(1747년)	4

오씨유래변정론(吳氏由來辨正論)

2. 나주오씨와 해주오씨는 연관성이 없다	7
3. 보성오씨세보(原譜) 병술보(1766년)	9
4. 해주오씨족보(原譜) 정해보(1767년)	12
◀ 特書一 (공자의 춘추권제26) ▶	15
◀ 조작하고 방조한 7책(造作 傍造 七冊) ▶	22
1책. 1940년 전후 조작한 오씨삼십세계도	22
2책. 1953년 조작한 나주오씨연방세고	30
3책. 1962년 발행한 오씨대동보 요점	45
4책. 1969년 발행한 오씨본원 조작의 요점	48
5책. 1991년 건립한 장화왕후유적비와 유적실록	50
6책. 1999년 발행한 오씨득관고 중요부분	55
7책. 三君吳氏 1900년대 신보왜곡을 입증한 함평오씨 세계본원 ·	61
○ 오씨유래를 조명한 현대사	62
○ 현안 및 끝맺음	63
○ 특별문헌 함양오씨족보(무인보1998년)변정론	68
◀ 特書二 이단인 구흥룡회지에 게재한 기록문 ▶	71
○ 종간후기	100
○ 나주오씨현조	101
○ 부 록	103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

(羅州吳氏始祖와 由來)

머 리 말 (序頭)

무주공산 같은 인터넷 상에 남의 氏族史인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가 다음과 같이 왜곡되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 나주오씨가 해주오씨에서 분적(分籍)하였다고 왜곡하고,

【둘째】 나주오씨시조를 오숙규(吳淑珪)라고 왜곡하고,

【셋째】 오첨(瞻)을 한국오씨 도시조(都始祖)라고 왜곡하고,

【넷째】 나주오씨 중조 오숙규공(中祖吳淑珪公)을 첨(瞻)의 24세손 현보(賢輔)의 五子라고 왜곡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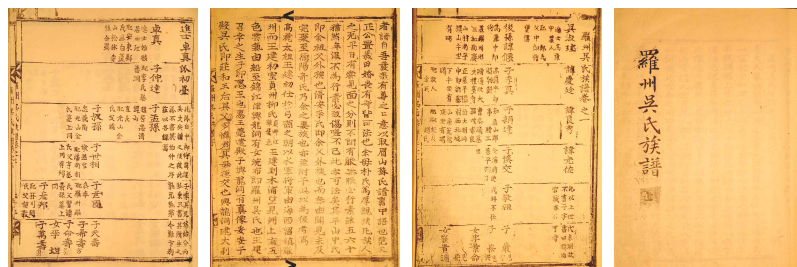
【다섯째】 나주오씨선조 『휘부순 다련군父子』를 오첨(吳瞻)의 후예로 왜곡하였다.

이 같은 기록을 본 독자들은 해주오씨가 나주오씨의 큰집으로 오해하고 나주오씨 후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곡된 사실을 증거하는 나주·보성·해주 삼성(三姓)의 18세기 구(舊) 족보와 20세기 신(新)족보로 사실을 규명합니다.

※ 독자여러분 첨부하는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의 글을 보시고, 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오씨족보(原譜) 정묘보 (1747년)



【원보환경】 原譜環境

羅州吳氏는 보계문(譜系文)을 화재로 소실(燒失)하여 비조(鼻祖)의 휘자(諱字)를 상고하지 못하고 금양군의 유서와 철습한 편서(掇拾片書)에 의하여 정묘보(丁卯譜) 첫줄 맨 앞에 쓴 오숙규(吳淑珪) 휘경연(諱慶延) 휘양수(諱良秀) 휘광자(諱光佐) 이상의 세대(世代)를 모르므로 첫줄 맨 앞의 오숙규공(吳淑珪公)을 中祖로 하고 그 내분의 후손인 휘언(諱偃)을 기일세(起一世)로 정립(定立)하였다.

환경(環境) : ① 주위의 사물 또는 사정 ② 생활체를 둘러싸고 그것과 접촉을 유지하는 외계(外界)

【원보역문】 原譜譯文

羅州吳氏 정묘보 족보유실 및 부집사적기(族譜遺失及哀集事蹟記)의 금양군 휘겸 소록(諱謙 所錄)과 태인공 휘희길 소기(諱希吉 所記)에 의하면 吳氏 先과 본은 나주 중흥리(흥룡동)에서 기(起)하여 신라(新羅)에 벼슬 했고, 나주는 변한(弁韓)땅인데 진한(辰韓)으로 들어갔다. 후에 백제(百濟)땅이 되었는데 신라(新羅)로 합쳐졌으며, 오씨 시조는 김부왕(경순왕)의 부마가 되었다는 향중구노(鄉中舊老)들의 구전언설(口傳言說)과 고려태조 왕건이 수군장군이 되어 서해(西海)에 머물러 羅州에 진을(留鎭羅州)치고 목포에 이르러 섬 위(주상洲上)의 오색구름(五色雲氣)을 보고 배로 금강진 흥룡동에 이르니 포목(배)을 빨래하는 여인이 있는데, 바로 羅州吳氏다. 왕건이 불러 총애하여 서기912년 생자(生子)하니 무(武) 혜종(惠宗)이시며 오씨는 바로 장화왕후요 그父는 다련군 이시고 그母는 덕교라는 기록이 있다.

【원보내역】 原譜內譯

1. 첫머리 吳淑珪, 諱慶延, 諱良秀, 諱光佐이 이상 世代를 모르므로 아들자자를 쓰지 않고 휘자를 쓴다. 관직 역시 알수 없다 하였다. 그래서 吳淑珪부터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줄을 바꿔쓰기를 (첫줄 내분의후손) 후손 휘언(後孫諱偃)을 起一世로 하여 자계진(子季眞)-자영달(子穎達)-자신교(子愼交), 신중(愼中), 신의(愼儀)순차로 세계(世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大宗會가 2005년도 한국성씨총연합회로 원고를 『나주 오씨세보에 의하면 시조는 고려중엽에 진사를 지낸 吳淑珪이며』라고 제출하여 한국성씨총감에 『나주오씨시조를 오숙규(羅州吳氏始祖吳淑珪)』로 등재한 것은 譜學부재로 정묘보원전(原典)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2. 정묘보下卷 ○진사탁진파초첩(進士卓眞派初疊)아래
이파는 중랑장 휘언의 아들 계진(季眞)형제인데. 처음 나뉘지고 난리로 실보(失譜)한 후 피차의 가승에 낳고 나뉘진 것을 써놓지 않아서 백중지서(伯仲之序) 숙형숙제(孰兄孰弟) 누가兄이고 누가弟인지 지금 가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로 기록한다 하였다. 그런데 『숙형숙제인 형제서차(兄弟序次)를 판별(判別)하는 전거(典據)도 없이

1941년 신사보를 하면서 諱卓眞을長子로 자리바꿈 하고』 숙형숙제 기록을 삭제(削除)하였다.

【집해集解】 18세기 씨족사(족보) 문헌고증

- ★ 나주오씨 비조(鼻祖)는 실보미상(失譜未詳)이요 기일세휘언(起一世諱僊)은 나주오씨 중시조(中始祖)이시다 .
- ★ 나주오씨 발상지 (發祥地)는 금양군유서(1575년)의 기록상 나주중흥리(일명흥릉동)이다.
- ★ 다련군은 중조오숙규공(中祖 吳淑珪公)의 선조 (先祖) 이시다.
- ★ 다련군은 고려태조국구 이시다. (신라 김부왕 부마설은 와전된 것이다.)

◀ 오씨유래 변정론(吳氏由來辨正論) ▶

2. 羅州吳氏와 海州(향파)吳氏는 연관성이 없다.

- 인터넷 위키 사전에 언급한 나주오씨와 해주오씨의 연관성에 대하여 나주오씨 정묘보와 보성오씨 병술보 해주오씨(향파) 정해보 및 18세기 족보원전(族譜原典)으로 사실관계를 밝힌다.
- 나주오씨정묘보는 ○보성오씨 병술보(1766년) ○해주오씨(향파) 정해보(1767년)에 1세 오침부터 24세현보, 현좌, 현필까지 기록하여 전하는 오씨세계록(吳氏世系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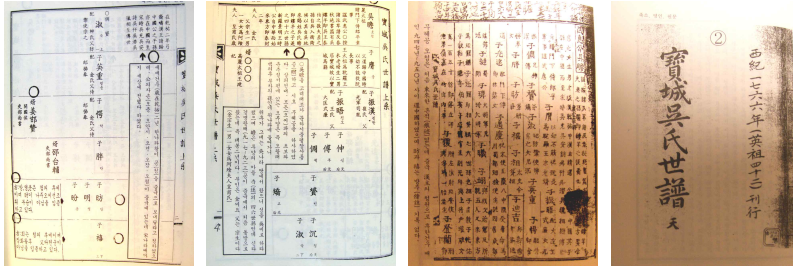
【반면】 해주오씨(향파)는 보성오씨와 나주오씨 정묘보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태조 왕건과 장화왕후 조부순(祖富純) 부다련군(父多隣君) 세가나주지목포(世家羅州之木浦)기록이 없다.

【다만】 해주오씨족보와 보성오씨족보의 오침방주(吳瞻傍註)는 공(共)히 모든 파의 초보와 춘추절서편에 오루양(吳鑊羊)이 있는데, 루양은 부차(夫差)의 孫이고 침(瞻)은 곧 루양의 후예다. 그리고 후한건우(後漢乾祐=947~950)때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유일하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1766년 보성오씨 병술보 보성오씨세계와 1767년 해주오씨(향파)족보 정해보 海州君以上二十三代世系 1700년대 구보(舊譜)및 1900년대 후반 신보(新譜)

일부를 전재(轉載)한다. 대조(對照)해 보면 숙지(熟知)하게 될 것이다.

3. 보성오씨세보(原譜) 병술보(1766년) 寶城吳氏世系



【원보역문】 原譜譯文

武惠公吳瞻 삼가 살피건대 모든 파의 초보(草譜)와 춘추절서편(春秋絕書篇)에 오루양(吳鏤羊)이 있는데 루양은 부차(夫差)의孫이고 첨(瞻)은 곧 루양의 후예다.瞻이 처음으로 東方에 와서 김종지(金宗之) 딸에 장가 들어 男女의 자식을 낳았는데, 후한건우(後漢乾祐)와 고려정종(高麗定宗)때 중국 한주(漢主)가 공(瞻)을 돌려보내 달라고 청원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이 중국에 있었는데, 송나라 때까지 오충(吳充), 오안시(吳安詩), 오견(吳杆), 오잠(吳潛), 오렵(吳獵)이 상계전세운(相繼傳世云)하였으며, 왕건태조증(贈) 문하시랑평장사시(諡) 무혜공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

1. 상기 원보는 오첨이 후한건우(947~950년)때와 고려정종(946~949년)때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기록만 있고 어느때 동방(조선)으로 왔다는 기록은 없다.
2. 1900년대 후반에 발행한 보성오씨족보 오성약사는 신라경명왕(917~923년)때 오첨공이 상인따라 우리조선 남해로 표류하여 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또 신라지증왕원년(500년)에 동래하였다고 이증으로 기록하고 있다.
3. 춘추절서편(春秋絕書篇) 이라는 책은 한·중(韓中) 어디에도 없다. 다음 「特書一」 孔子의 춘추권제이십육(春秋卷第二十六)을 참조 요망함.

【고증】

1. 1767년 해주오씨 정해보 일대오첨(一代吳瞻)과 1766년 보성오씨 병술보 무혜공오첨(武惠公吳瞻)은 공(共)히 춘추절서편에 있는 오루양은 부차의孫이고 첨(瞻)은 루양의 후예라고 하였는데 중국오씨족보(吳氏大統宗譜)에는 부차의孫이 없고 루양(鏤羊)도 없

으며 첨(瞻)도 없다.

2. 중국한주(한나라왕)가 瞻을 보내 달라고 청원하여 후한건우(947~950년)와 고려정종(946~949년)때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하였으며, 신라경명왕(917~923)때 첨(瞻)이 중화로 부터 처음 동방으로 왔는데, 즉 태봉2년948(乾祐2년)에 중국 한왕의 청원으로 환국하였다 하였으니 瞻은 900년대 사람이다.

2011.오씨유래전거집 103p~111p 123p~125p 129p~131p 135p~140p 참조)

【원문】 原文

子 방(昉) 弟明, 盼 이외 기록없다.

子 희(禧) 이외 기록없다.

子 상(相) 弟桓 이외 기록없다.

子 현보(賢輔)봉 해주군 - 제현좌(弟賢佐)비안군 - 현필(賢弼)화순군 이외 기록없다.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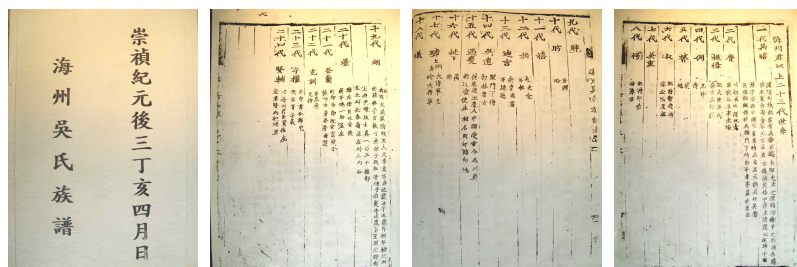
- 보성오씨세계(寶城吳氏世系)는 자자로 세계(子字 世系)하고, 현보, 현좌, 현필은 字나 號가 없으며
- 해주군이상 23대세계(海州君以上二十三代世系)는 대자로 세계(代字世系)하였다.

(2011.오씨유래전거집 103p~125p 참조)

4. 해주오씨족보(原譜) 정해보(1767년)

해 주 군 이 상 二 十 三 代 世 系 를 吳 氏 三 十 世 系 로 造 作 했 다 .

《증거 二十三代世系는 1767년인데 - 三十世系는 1940년 전후다》



【원보역문】 原譜譯文

一代吳瞻 = 삼가 살피건대 춘추절서편(春秋絕書篇)에 오루양(吳鑊羊)이 있는데, 루양은 바로 부차(夫差)의 孫이고 첨(瞻)은 바로 루양의 후손이다.瞻이 처음 동방으로 와서 김종지(金宗之) 딸에 장가 들어 男女의 자식을 낳았으며 후한건우(後漢乾祐)때 중국 한주(漢主)가 공(瞻)을 보내 달라고 청원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이 중국에 있었는데, 송나라때까지 오충(吳充), 오견(吳健), 오안시(吳安詩), 오잠(吳潛), 오렵(吳獵)이 상계세전언(相繼世傳焉)하였으며, 증(贈) 문하시랑평장사 시(諡) 무혜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문】 原文

十代 방(昉) 弟明 盼이외 기록 없다.

十一代 희(禧) 이외 기록 없다.

十二代 상(相) 弟桓 이외 기록 없다.

二十四代 현보(賢輔)봉 해주군, 현좌(賢佐) 비안군, 현필(賢弼) 화순군 이외 기록 없다.

【참고】

1. 상기 원보는 오침이 후한건우(947~950년)때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기록만 있고 어느때 동방(조선)으로 왔다는 기록은 없다.
2. 1979.9.9. 서울 오씨대동종친회 종지(宗誌)는 신라경명왕(918년)때 입국 귀화 하신분은 오침공 이시고 고려성종(984년)때 입국 귀화 하신분은 오인유공 이시다 라고기록하여 전하고 있다.
3. 보성-해주(三君)오씨 족보의 춘추절서편(春秋絕書篇)은 공자일대기(孔子一代期) 마지막서(書)인 春秋卷二十六을 말한것인데, 그 書에는 오루양과 오침이 없다.
4. 춘추절서편(春秋絕書篇)이라는 책은 한.중 (韓.中) 어디에도 없다. 다음 「特書一」을 참조 요망함

★ 나주오씨와 해주-보성(三君)오씨는 시조와 발상지가 다르고 연관성이 없다.

★ 해주오씨(향파)-보성(三君)오씨의 발상지는 경남 함양이다.

★ 해주오씨(향파)-보성(三君)오씨의 비조(鼻祖)는 신라경명왕(917~923)때 동래한 오침(吳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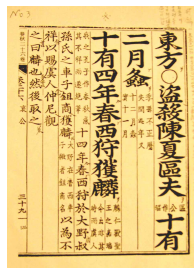
『特書一』

◀ 공자의 춘추권제이십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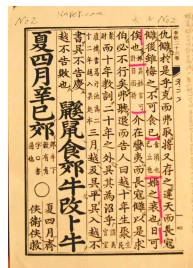
(孔子的 春秋卷第二十六)

1. 중국문헌 춘추권제이십육 (中國文獻 春秋卷第二十六)
2. 한국문헌 실체없는 춘추절서편 (韓國文獻 無實體 春秋絕書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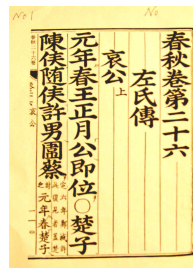
(1) 중국문헌 춘추권제이십육좌씨전(中國文獻 春秋卷第二十六 左氏傳)



(3)



(2)



春秋原文(1)



(2) 한국문헌 실체없는 춘추절서편 (韓國文獻 無實體 春秋絕書篇)

기원전(551~479)出生
73歲崩

양서 논리 (兩書 論理)

- ☑ 한국 문헌의 : 춘추절서편은 잘못 전해진 기록문(記錄文)인데 이것을 한국(족보와)씨 족사에서 「춘추절서편」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다. (韓中 어디에도 춘추절서편 이라는 책은 없다)
- ☑ 중국 문헌의 : 春秋卷第二十六은 孔子께서 마지막으로 쓴 것인데, 와전 되었으며 「春秋卷第二十六 (좌씨전애공상)」을 「春秋第二十六卷 (좌씨전애공상)」이라고도 한다.
- 春秋卷第二十六(左氏傳哀公上)에 의하면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즉위한지 14년 봄에 서쪽 大野 사냥에서 기린을 잡은 일들을 孔子께서 마지막으로 쓴 절필(絶筆)로 끝맺

음 (孔子修春秋絕筆於獲麟後遂以一切事之終爲獲麟)한 책이 『春秋卷第二十六』이다.

- 孔子의 마지막書 『春秋卷第二十六』을 절서(絶書) 또는 절필(絶筆)이라고 한다. 때문에 별도로 춘추절서편이나 춘추절서책은 없다. 그런데 한국문헌은 실제없는 춘추절서편을 근거 不明한 사물의 수용처로 사용했으며 회자되고 있다.
- 春秋卷第二十六을 절서 또는 절필 이라고 하는 구절(句節) 「春秋」에 「絶書」를 합하여 『춘추절서편』이라고하였는데, 이것이 자연적(自然的) 와전인지 - 인위적(人爲的) 왜곡인지는 알 수 없다.

● 春秋卷第二十六(左氏傳 哀公上) 原文一部.

元年春王正月公即位 ○楚子 定六年鄭滅許此復見者(초자 6년에 鄭은 멸하고 許는 부활했다) ○姬之衰也,日可俟也(姬성이 吳성에 이르게 됨은 가히 기다림이라) ○越十年生聚(월은 10년간 백성들에 재물을 모으게 하고) ○而十年敎訓(10년간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어) 二十年之外吳其爲沼乎(20년만에 吳나라 궁실을 못 웅덩이로 만들어) ○ 22년만에 월(越)이 吳나라에 들어갔다.

- 十有四年春西狩獲麟 애공즉위 14년봄에 서편 大野 사냥에서 숙손씨의 차자 서상이 기린을 잡았는데, 공자께서 기린은 상서로운(麟仁獸)짐승이라며 마지막으로 쓴 춘추절필이 春秋卷第二十六이다.

일명 잠문절필(雜文絶筆)이라고도 하는데 그중에 오루양(吳鑊羊) 오침(吳瞻) 오익(吳翊)의 명(名)은 없다.

- 上記와 같이 춘추절서편은 韓中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1700년대 족보문헌 씨족사에 회자되고 그간 事物의 근거가 不明하거나 人物의 실존 여부가 不明한 것들은 모두 춘추절서편에 있다고 하였다. 오루양(吳鑊羊)과 오침(吳瞻)이 한국문헌의 실제없는 춘추절서편에는 수록되었는지 몰라도 현존한 中國 春秋卷第二十六에는 오루양 오침이 없다.
- 공자께서 (BC.551~BC479)는 魯 나라 哀公 14年 (BC 481) 71歲에 絶筆하고 73歲로 崩하셨습니다.

【본편 총괄 고증】

1. 1766년 발행한 보성오씨병술보 이후 발행한 오성약사는 무혜공 오침이 신라경명왕때 상인따라 조선 남해로 왔으며 왕명을 받아 천령(함양의 고호) 지금의 함양읍 관동에 정거(定居)하였으므로 천령산하관동(天嶺山下冠洞)은 三君오씨의 발상지라고 하였다.

2. 1767년 발행한 해주오씨 정해보 해주군 이상 23代世系는 보성오씨 병술보와 동일하게 당시의 현실에 입각한 현실적 기록이므로 고증된 것이다. 해주, 보성, 三君吳氏의 비조(鼻祖) 오첨(吳瞻)은 후한건우(947~950년)때 중국으로 돌아갔다.
3. 오류양과 첨은 부차의 후손이 아니다. 중국오씨족보(吳氏大統宗譜)에 의하면 21世 부차의 아들 鴻, 友, 地는 월왕구천(越王句踐)에게 볼모로 유배되거나 피살되어 생사부지(生死不知)하고 무후(無後)이므로, (23世-24世-25世를 공백으로 두고) 계찰(季札)의 7代孫 踰由(蹰由)를 出系시켜 26世부터 世系하고 있다. 2008년 나주오씨연원실록 465p~466p 참조 - 2011년 오씨유래전거집 155p ~165p 참조

정사와 비정사 (正史와 非正史)

正史로 보는 보성오씨 舊병술보 보성오씨세계와 해주오씨 정해보 海州君以上二十三代世系를 吳氏三十世系로 나주오씨 후손 모인(某人)이 조작하여, 나주오씨선조 = 휘부순, 다련군, 장화왕후, 중조숙규공을 신라경명왕(917~923)때 동래한 오첨(吳瞻)의 후손으로 조작한 吳氏30世系圖를 시작으로 윤색한 책이 다음 (1~7책) 열거한 책들이다.

1책 오씨30세계도.

2책 오씨상고세계. (1-2책은나주오씨연방세고(羅州吳氏聯芳世攷)에 있음)

3책 오씨대동보.

4책 오씨본원.

5책 장화왕후오씨유적비와 장화왕후오씨유적실록 (이상 5개의 책은 위작한 비정사(僞作한 非正史)인데, 아래 3개의(6.7.8)책이 正史인양 뒷받침 하였다.

⑥책 오씨대종사고.

⑦책 오씨득관고.

⑧책 오씨여 우리는 하나다.

以上 책들이 자기 조상을 버리고 남의 조상을 침탈하였다. 이것은 중차대한 사안(事案)이므로 책 하나하나 비판하고 사실을 밝힌다.

◎ 단계적으로 조작한 책의 역할

- ① 1940년 전후 조작한 오씨삼십세계도(吳氏三十世系圖)는 모필서(毛筆書) 나주오씨 연방세고에 있는데 철필서(鐵筆書) 나주오씨연방세고를 탄생했다. (그래서 나주오씨연방세고는 모필서와 철필서 두 종류다.)
- ② 1953년 오씨상고세계(吳氏上古世系)는 철필서 나주오씨연방세고에 있는데, 오씨대동보(吳氏大同譜)를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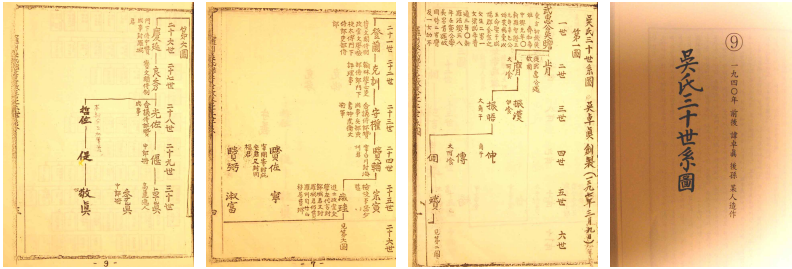
- ③ 1962년 吳氏大同譜는 한국에 있는 吳氏가 약 22본인데, 겨우 十個 本貫이 모여 오씨 대동보를 편찬하고 오씨본원을 탄생했다.
 - ④ 1969년 오씨본원(吳氏本源)은 조선씨족통보에 있는 오씨가 22본인데, 겨우 十本貫이 『吳氏本源』을 편찬하면서 나주오씨 丁卯譜를 번복(顛覆)하고 시원(始原)을 조작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 ⑤ 고려태조비장화왕후오씨유적비명을 1989년(己巳)에 장흥후인 위민환(魏民煥)씨께서 근찬(謹撰)하시고, 1991년(辛未)에 근수(謹竪)하고, 1992년 7월 고려태조장화왕후오씨 유적실록을 발행하였는데, 碑身과 碑文 및 實錄이 왜곡된 사실은 장화왕후편에서 밝힌다.
 - ⑥ 1984년 오씨대종사고는 오씨30세계도와 오씨30세계도설을 주제삼아 극찬(極讚)하고 조작을 사실인양 은폐하였다.
 - ⑦ 1999년 오씨득관고 논지(論旨)는 諱卓眞께서 오씨30세계도설 원문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였고, 諱大善께서는 오씨대동보서(序) (별첨서류 제3호 7행 및 별첨서류 제5호)에 10世諱昉(부순)이 함양으로부터 처음으로 錦城에 거주하였다. 나주 오씨시조 諱淑珪는 25世孫이라고 하였는데… (진위는 득관고 편에서 밝힌다.)
 - ⑧ 2000년 오씨여 우리는 하나다. 책은 오씨30세계도와 오씨30세계도설 및 오씨상고세계 조작을 사실인양 극찬하고 오국계도(吳國系圖) 오나라건국조 (吳建國祖 18世泰伯 ~ 38世(夫差) 39世이의(夷義) 40世루양(鏤羊) 41世축(逐) 42세기(起)-(43世○-44世○)-45世침(瞻)으로 하였는데 이분들(夷義, 鏤羊, 逐, 起, 瞻)은 오건국조 태백(泰伯)계열의 후예로 보기 어렵다. (中國吳氏大統宗譜에 없다)
- ※ 상기 1책부터 7책까지 오침계(吳瞻系) 10世방을 부순으로 11世희를 다련군으로 우리 중조 휘숙규공을 24世현보의 2子, 3子, 5子로 조작하여 나주오씨를 해주오씨에서 분적한 작은 집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둔 족보필화사건(族譜筆禍事件)이다.

【참고】

1.2.3책이 조작이 아니면 三君吳氏는 나주오씨에서 분적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조작하고 방조한 칠책(七冊) ▶

【1책】 1940년 전후 조작한 오씨삼십세계도1부
(吳氏三十世系圖一部)



【본문】 本文

一世武惠公吳瞻 東方에 初無吳姓인데, ○齊和帝中興元年 ○新羅智證王元年辛巳에 公始來我東이하니 王命娶于咸陽郡金宗之女하야 生二男一女하다. ○梁武帝普通三年 ○新羅法興王八年壬寅에 公率長男肯還故國時에 二男膺及一女는 幼不能從하고 仍居咸陽하다.

【해설】

一世무혜공오침 = 동방에는 오씨성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나라 화제중흥원년(501년) 신라지증왕원년(500년) 신사에 침(瞻)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동방으로 오니, 왕이 함양군 김종지 딸에 장가들라 명령(命)하여 二男一女를 낳았는데, 양나라 무제보통三年(522년) 신라법흥왕8년(521년) 임인에 침이 장남 긍(肯)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二男 응(膺)과一女는 어려서 따라 가지 못하고 함양에서 살았다고 하였다. 묘호와 원년이 틀린다(廟號元年 相違하다.)

【고증】

1. 上の 증거본문 『吳氏三十世系圖』는 1940년 전후 조작했으며 아래 「吳卓眞創製一三九七年三月九日」은 1984년 전후 가필하고 권말(卷末) 맨끝 『哲佐-倎-敬眞』은 2000년에 각각 가필하였다.
2. 왕조역년을 제나라, 양나라, 신라, 중복으로 쓴 것은 고서화(古書化)로 가장한 것이고, 신라지증왕원년은 辛巳年이 아니고 庚辰年(500)이며, 법흥왕8년은 壬寅年이 아니고 辛丑年(521)이다.

- ※ 그리고 왕명으로 장가 들어 얻은 처자 三人을 버렸는데, 그런 時代였던가?
- ※ 그리고 오씨래동문적기(吳氏來東文蹟記)에도 吳氏三十世系圖는 일언반구 없다.

【본문】 本文

十世방(昉) 字富純 號寒松亭 自咸陽始居錦城 律令典博士 陞兵部侍郎

十一世희(禧) 字景夫 號清齋居士 翰林學士 高麗太祖四年辛巳以 莊和王后定祥封多憐君

【해설】

10世昉 자는 부순이요 호는 한송정, 함양으로부터 처음 금성(나주)에 와서 살았으며, 율령전박사, 병부시랑에 오름

11世禧(희) 자는 경부요 호는 청재거사, 한림학사 고려태조 4년신사에 장화왕후 정상(定祥)으로 다련군에 봉했다.

【고증】

10世 방(昉)과 ○11世 희(禧)는 오침의 후손인데, 나주오씨 선조 휘부순 (諱富純)과 다련군(多憐君)으로 조작하여 방주에 기록했다. (정묘보를 번복했다.)

【본문】 本文

十二世相 通文學博士 吏部侍郎 封錦城伯 ○弟桓 號三樂軒 律令典 博士 封首陽伯 ○弟檢 尚書左僕射 封天嶺伯

검은 해주 보성(三君)오씨 구보(舊譜)에 없었는데 본 30세계도에서 조작한 유령이다. (나주오씨와 무관 하므로 해설 생략함.)

○女○○○○誕生○○○○建殿于胎鄉興龍洞妥安眞像又建大刹

【고증】

○○○○은 장화왕후 표시인데, 장화왕후는 吳瞻의 12世孫이 아니다.

【본문】 本文

二十四世賢輔(현보) 宰白川 封海州君.-----

二十四世賢佐(현좌) 宰開寧 封庇安君, 又封同福君,---

二十四世賢弼(현필) 寶城君 又封和順君 ----

【해설】

24世현보는 재백전 인데 해주군에 봉하고,

24世현좌는 재개녕 인데 비안군에 봉하고 또 동복군에 봉했으며,

24世현필은 보성군 인데 또 화순군에 봉하였다.

【고증】

三君(현보 현좌 현필)의 봉작 봉군은 고증할 수 없다. 1979년 오씨대동종친회 종지참조 三君의 자(字), 호(號)가없는 것은 1700년대 구보세계(舊譜世系)와 동일하다.

【본문】 本文

二十五世淑珪(숙규)進士 政堂文學 左代言 封 錦城君 又封 羅城君 仍貫羅州 自竹山移居 貫鄉

【해설】

25世 淑珪 진사는 지방관청의 좌대변인 인데 금성군에 봉하고 또 나성군에 봉했으며, 본관은 나주인데 죽산으로부터 관향(나주)으로 이사와 살았다 라고 하였다.

【고증】

본 오씨삼십세계도에 처음으로 중조오숙규공을 현보의 二子로 조작하고 ○4世 휘신중(諱愼中)금성군 ○5世 휘자치(諱自治)나성군 군호를 휘숙규공(諱淑珪公)에게 봉군(封君)하고 죽산에서 관향 나주로 이사와 살았다고 날조하였다.

【본문】 本文

二十六世경연(慶延) 문하시중 찬성사 封나성군. (世와 방주를 조작했다.)

二十七世양수(良秀) 보문각시제. (世와 방주를 조작했다.)

二十八世광좌(光佐) 첨의시랑찬성사. (世와 방주를 조작했다.)

二十九世 언(僊) 중랑장. (世만 조작했다.)

三十世탁진(卓眞) 고려일인(高麗逸人), 계진(季眞) 중랑장(中郎將)은 (世만 조작하고) 철좌-제-경진(哲佐-愼-敬眞)은 조작하여 가필 했다)

【1책 총괄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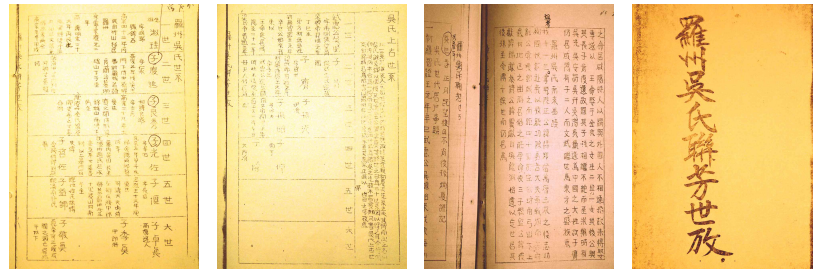
○ 吳氏30世系圖는 1940년 전후 송은당공 후손(모인)이 조작했다. 나주오씨연방세고(오씨30세계도설-오씨30세계도-오씨상고세계)를 조작하면서 고서화(古書化)하려고 왕조역년(王朝歷年)을 중복으로 기록 하였으나, 십간십이지의 정수(定數) 『甲4 乙5 丙6 丁7 戊8 己9 庚10 (0수) 辛1 壬2 癸3』를 不知中 왕조역년 간지와 서기년도를 다르게 기록하였다.

○ 吳瞻은 후한건우(947~950)때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시간을 되돌려 다시 신라지증왕원

년(500)에 東來하였으니 신불(神佛)이다.

- 吳瞻후손 10世방과 11世희는 오직 첨의 후손 일뿐이다. ○부순과 多憐君은 나주오씨 선조이시다.
 - 12世 검(檢) 천령백(天嶺伯)은 해주(향파) 보성(三君)오씨 구보에는 없는데, 吳氏三十世系圖에서 처음 조작한 유령이다.
 - 24世 현보, 현좌, 현필에 대하여 1979.9.9. 오씨대동종친회 종지(宗誌) 吳氏世系 고증편(考證편) 6에 의하면 현보 현좌 현필三公의 本名과 字관계가 미상하여三公의 父, 祖와 子, 孫의 기록이 史書에 없다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명대사전」 「고려사 열전 및 고려시대사」에 기록된 오응부(吳應夫)와 오응유(吳應儒)는 그분들의 本名이지 누구(현보-현좌)의 字가 아니다. 字는 씨족사(氏族史) 족보 방주에나 기록할 뿐 史記에 本名대신 字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 중조오숙규공을 현보二子로 만들고 선조 ○4世諱愼中 금성군, ○5世諱自治 나성군, 군호(君號)를 中祖吳淑珪公에게 [금성군 우봉(又封) 나성군]임의로 봉군(封君)하고 죽산에서 나주로 이사와 살았다고 날조하였다. 《정묘보 기록은 중조오숙규 고려중엽인 진사 배××정씨 父중랑장 보유》
 - 정묘보 족보유실부집사적기에 휘부순 자 다련군과 손록(孫錄) 첫줄 맨 앞의 중조오숙규 휘경연 휘양수 휘광좌를 이상 세대미명 이라고 傳하고 있는데, 반하여 오침계(吳瞻系) 25世를 숙규로~ 26世를 경연으로 27世를 양수로 28世를 광좌로 29世를 僊으로 30世를 卓眞-季眞으로 우리 祖上을 吳瞻후손으로 만들고 환부역조 하는 만행을 하였다.
- ◆ 同姓인 諸吳氏 여러분, 그리고 나주오씨 후손여러분, 우리의 방조(傍祖) 휘탁진조(諱卓眞祖)께서 누명을 쓰고 우리의 선조를 오침세계(吳瞻世系)로 조작하여 선조들께서 보적침탈 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수호하고자 만부득이(萬不得已) 자타선조(自他先祖)의 명휘를 거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11년 吳氏由來典據集 57p~90 248p~ 254p 참조)

【2책】 1953년도 조작한 나주오씨연방세고(吳氏上古世系)



【본문환경】 本文環境

조작한 나주오씨연방세고(羅州吳氏聯芳世攷) 오씨상고세계(吳氏上古世系)는 원본과 필사본 두 종류다. 원본(原本)은 붓으로 쓴 모필서 책이고, 필사본(筆寫本)은 유지(油紙)에 철필(鐵筆)로 써 등사판(謄寫機)에 롤러로 밀어서 인쇄한 책이다. 그런데 原本은 6.25동란에 유실되고 필사본이 오병순(吳炳淳)씨댁과 오채환(吳採煥)씨댁에 소장되어 있다 라고 1984년 발행한 吳氏大宗史考가 전하고 있는데, 나주오씨중량장공(휘계진諱季眞)파 후손 사법서사 오도근(吳道根)씨가 同 필사본을 1987년 추석 때 처음 입수하고 2000년 말 나주오씨근원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吳恒植이 붓으로 쓴 原本 吳氏三十世系圖 복사본을 나주오씨 근원연구 교재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므로 原本이 6.25동란 중에 유실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 상기 나주오씨연방세고(필사본) 中 중요부분

- 『3번째 羅州吳氏南來事蹟』 말미 낙관서(落款書)에 계사춘정월기망후일 불초후손 炳夏께서 (1953.1.16.) 근기한 글이 있고,
- 『11번째 吳氏三十世系圖說』 말미 낙관서(落款書)에
- 時 흥무삼십년정축삼월구일(1397.3.9.) 효명이라 쓰고
- 금성군(휘숙규공)五世孫 卓眞止筆이라 쓴 글이 있으며,
- 『13번째 吳氏三十世系圖』 말미에 철좌-익사-경진(哲佐-益師-敬眞) 글이 있고,
- 『23번째 吳氏上古世系』 말미에 자철좌-자익사-자경진(子哲佐-子益師-子敬眞) 글이 있다.

지금부터 나주오씨연방세고 조작을 증거한다.

【본문내역】 本文內譯

- 첫째 諱卓眞祖 행장(1498년 최부 찬)을 1981년 신유대동보에 처음으로 수록 하였다. 그리고 그 행장중에 『수사선세계도이증자(手寫先世系圖而贈子) 손수 선대의세계(先代世系)를 써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글이다. 선세계(先世系)란 당신부터 위의 상조들의 대수(上祖 代數)를 말한 것이지 후손들의 대수(代數)까지 말한 것은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선세계도인데, 구삼보(舊三譜) 첫줄에 『중조오숙규, 휘경연, 휘양수, 휘광좌』 이상 세대미명(世代未明)이라 쓰고, 휘탁진(諱卓眞)파를 족보별권(下卷)에 수보하였는데, 그동안(194년간) 제시하지 않았으며, 선생(송은당)의 저서 해동형승록2권((海東形勝錄二卷) 사행록5권(事行錄五卷)을 집에 전(傳)한다고 하였을 뿐 나주오씨연방세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주오씨연방세고는 1940년 전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 둘째 나주오씨연방세고를 계사춘정월 기망후일(癸巳春正月1953년 1월 16일) 불초후손 병하(炳夏)께서 근기한필사본은 남아 있는데, 원본(原本)만 "1950년 6.25동란에 유실되었다" 라고 한말은 어불성설이다.
- 셋째 1953년 조작한 물적 증거는 필사본 나주오씨연방세고다. 그 연방세고에 병하(炳夏)씨는 1953년 나주오씨 남래사적(羅州吳氏南來事蹟)을 쓰고 휘탁진조(諱卓眞祖)는 1397년 吳氏三十世系圖와 三十世系圖說을 썼다. 그런데 글을 쓴 년차(年差)가 556년이 고, 연령차는 515년이다. 그리고 炳夏氏의 사정공 파보 초보 임자보를 1912년에 발행 하였는데, 그 파보상의 상조 철좌-익사-경진(上祖 哲佐-益師-敬眞) 기록이 있다. 이것을 1397년에 작고하신 諱卓眞께서 쓸 수 없으므로 병하-대선(炳夏-大善) 두분이 휘탁진조(諱卓眞祖)의 명의(名義)를 차명(借名)하여 조작하였다는 물적 증거가 바로 나주오씨남래사적과 철좌-익사-경진(哲佐-益師-敬眞) 기록이다.
- 상기와 같이 조작한 오씨상고세계(吳氏上古世系)를 ○해주오씨(향파)와 보성(三君)오씨가 인용하여 1900년대 후반에 발행한 신보(新譜)는 구보(舊譜)에 없는 一世오첨(吳瞻)의 방주에 자(字), 호(號), 출생년, 배위를 가필하고 24世 현보(賢輔)는 자(字)와 호(號)를 현좌(賢佐)와 현필(賢弼)은 자(字)만 가필하고 『나주오씨 선조 휘부순 다련군 장화왕후 중조숙규공』 내분(四人)을 보적침탈(譜籍侵奪)한 경위를 밝히기 위하여 아래 몇가지 사례를 기록한다.
- 1940년 전후 조작한 오씨30세계도의 오첨 방주와
- 1766년 보성오씨 병술보 보성오씨세계 원보의 오첨 방주와

- 1767년 해주오씨 정해보 해주군이상 23대세계 원보의 오첨 방주를 기록하였으며
- 끝으로 오씨상고세계를 인용한 보성오씨세계연원록(해주오씨, 함양오씨참조) 1996년 발행한 병자보 기록까지 한곳에 모두 전재(轉載)하여 「조작」과 「인용」을 대비(對比) 공개한다.

2011년 오씨유래전거집 103p~131p 393p~437p 참조

● 1953년도 조작한 오씨상고세계 (吳氏上古世系) 일부 전재

1. 【본문】 本文

一世武惠公吳瞻 字希明 號望齊 宋順帝 昇明元年丁巳生 東方初無 吳姓 新羅智證王元年辛巳 公始來我東以 王命定居咸陽至22年 梁武帝普通三年 新羅法興王八年壬寅 率長子肯還故國 高麗太祖四年辛巳 追贈 守門下侍郎平章事 諡武惠公 配新羅金氏 宗之女.

【본문역문】 本文譯文

一世무혜공 오첨의 자는 희명이요 호는 망재요 송나라순재 승명원년(477년) 정사생이다. 동방에는 처음에 오씨성이 없었는데, 신라지증왕원년(500년) 신사에 첨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동방으로 오니 왕이 함양에 살도록 명한지 22년 양무재 보통3년(522년) 신라법흥왕 8년(521년) 임인에 장자 긍(肯)을 데리고 고국(중국)으로 돌아갔다. 고려태조4년 신사에 추증 수문하시랑평장사에 시호 무혜공 하였으며 배는 신라김씨 종지여라고 하였다.

- 삼군(三君)오씨 1900년대 후반 신보(新譜)는 조작한 오씨상고세계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上記本文 밑줄친 문장은 30세계도에도 없는 글이다. 그리고 지증왕원년은 경진년이고 법흥왕8년은 신축년이다.

2. 【본문역문】 本文譯文

1940년 전후 조작한 오씨30세계도 참조

1940년 전후 나주오씨 문족이 조작한 오씨30세계도는 一 世 무혜공오첨 = 동방에는 오씨성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나라화제 중흥원년(501년) 신라지증왕원년(500년) 신사에 첨(瞻)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동방으로 오니 왕이 함양군 김종지 딸에 장가들라 명하여 2남 1녀를 낳았는데, 양나라무제 보통3년(522년) 신라법흥왕8년(521년) 임인에 첨(瞻)이 장남 긍(肯)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갈때 2男응(膺)과 1女는 어려서 따라가지 못하고 함양에서 살았다고 하였다. (남은 처자는 버린것인데, 그런 시대였는가? 그리고 신라지증

왕원년은 경진년이고 법흥왕8년은 신축년이다.)

3. 【본문역문】 本文譯文

보성오씨 병술보 보성오씨세계(原文) (오씨유래전거집 103p 참조)

1766년 보성오씨병술보 보성오씨세계 무혜공 오침 삼가 살피건대, 모든 파의 초보(草譜)와 춘추절서편에 오류량이 있는데, 루양은 부차의 손(孫)이고 침(瞻)은 곧 루양의 후예다. 침(瞻)이 처음으로 동방에 와서 김종지 딸에 장가 들어 男女의 자식을 낳았는데. 후한건우(947~950년)때 고려정종(946~949년)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하였을 뿐 동래하였다는 년대는 없다.

- 1950년 경인년 발행한 중국오씨족보(吳氏大統宗譜)에는 이의(夷義) 루양(鑊羊) 축(逐) 기(起) 침(瞻)이 없다.

4. 【본문역문】 本文譯文

해주오씨 정해보 해주군이상 23대세계 (原文) 오씨유래전거집 123p 참조)

1767년 해주오씨 정해보, 해주군이상 23대세계 一代오침 삼가 살피건대, 춘추절서편에 오류량이 있는데, 루양은 바로 부차의 손(孫)이고 침(瞻)은 바로 루양의 후손이다. 침(瞻)이 처음 동방으로 와서 김종지 딸에 장가 들어 男女의 자식을 낳았으며 후한건우(947~950년)때 중국으로 돌아갔다 하였을 뿐 동래하였다는 년대는 없다.

- 1950년 경인년 발행한 중국오씨족보(吳氏大統宗譜)에는이의(夷義) 루양(鑊羊) 축(逐) 기(起) 침(瞻)이 없다.

5. 【본문역문】 本文譯文

三畵오씨 신보 (오씨유래전거집 395p 참조)

1996년 보성오씨세계연원록(해주오씨 함양오씨참조) 병자보는 一世무혜공오침, 자는 희명이요, 호는 망재요, 송순재승명원년(477년) 정사생이다. 동방에 초무오성이더니 신라지증왕 2년(501년) 신사에 공이 시래아동하니 이왕명(以王命)으로 정거함양(금 함양군 함양읍관동 구 천령읍기)하다. 공은 각우 김종지(金宗之)의 女를 맞아 2남1녀를 두고 22년 후인 양무제보통3년 신라법흥왕9년(522년) 임인에 장자 긍(肯)을 솔(率)하고 수환(遂還)중국하다. 고려태조 4년신사에 추봉 수태부 문하시랑평장사하고 시호는 무혜공이시다. 배 신라김씨이니 종지(宗之)의 女다.

- 보성, 해주, 함양오씨는 이상과 같이 오씨상고세계(吳氏上古世系)를 인용하고 나주오씨선조 四人을 보적침탈 하였다.

【고증】

1953년도 조작한 오씨상고세계를 인용한 三君吳氏의 구보에 없는 瞻의 字,號,生年을 1900년대 후반에 발행한 신보(新譜)는 = 무혜공오침 字, 號, 生年을 가필 하였다. 三十世系圖는 瞻을 왕명으로 함양군 김종지(金宗之) 딸에 장가 들게 하였는데 여기는 왕명으로 침(瞻)을 함양에 정착해 살게 하였다. 그리고 지증왕원년은 庚辰이지 辛巳가 아니다.

【본문】 本文

十世子昉(방) 字富純 號寒松亭 嘗愛山水之勝 景文王十四年乙未 自咸陽始居錦城 敬宗寶曆元年 憲德王十六年乙巳生 文科 律令典博士 兵部侍郎 嘗見時事日非 自放水山 與孤雲 崔致遠處士王巨仁遍遊名勝 配鷄林金氏 侍中孝明女 墓錦城山 南亥坐雙墳.

【해설】

삼십세계도와 또 다른 조작이므로 해설할 가치 없다.

【고증】

10세방(昉)은 침(瞻)의 후손일 뿐인데 ○자(字)를 부순이라고 조작하여 一人二役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위 밑줄친 문장, 이외는 三十世系圖에 없는 것을 추가 조작 했으며, ○경문왕14年 甲午는 874년이고 경종보역(당나라 연호) 원년丙午는 826년이며, 헌덕왕 16년 甲辰은 824년이다.

【본문】 本文

十一世子禧(희) 字景夫 號淸齋居士 唐宣宗大中十年 新羅文聖王十七年 丙子生 憲康王二年丁酉 登文科吏部侍郎 孔子廟堂經學博士 當甄萱弓裔之叛亂 公無復仕意退放林泉 高麗太祖四年辛巳以 莊和王后定祥封多憐君 惠宗元年甲辰卒壽八十九 贈門下侍中平章事 諡文靖公以 王禮葬于興龍洞乾坐 配辰韓國夫人盧氏沙干連位女墓合祔.

【해설】

삼십세계도와 또 다른 조작이므로 해설할 가치 없다.

【고증】

11세禧는 瞻의 후손일 뿐인데 ○ 봉 다련군으로 조작하여 一人二役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위 밑줄친 문장 이외는 30세계도에 없는 것을 추가 조작했으며, 당나라 宣宗大中 10년은 丙子856년이고, 신라문성왕17년은 乙亥855년이고, 헌강왕2년丙申은 876년이고, 고려태조4년은 921년이고, 혜종원년甲辰은 944년이다.

【본문】 本文

十二世子相 字佑一 號晦谷 僖宗光啓元年憲康王十年乙巳生 早登文科通文學博士 吏部侍郎敬順王遜位也 退歸故園 惠宗元年甲辰 封錦城君(이하생략) ○子桓 字子雄號三樂軒 唐僖宗光啓三年 新羅定康王元年丁未生 登第律令典博士 員外郎敬順王遜位後謝歸田園 惠宗甲辰封首陽伯 ○子檢 字子定 唐昭宗乾寧四年 新羅眞聖女王十年丁巳生 登第刑部侍郎 惠宗甲辰封天嶺伯.

【해설】

12世 ○相○桓○檢은 나주오씨와 무관함으로 해설하지 않는다.

【고증】

12世 ○檢은 해주(향파) 보성(三君)오씨 구보에는 없는데 吳氏三十世系圖에 처음 조작한 유령이다.

【본문】 本文

女莊和王后 高麗太祖王后也(이하는 고려사 및 후비열전 과 정묘보 일부 기록인데, 『장화왕후나주오씨 다련군女』 기록만 뺐다. 唐昭宗乾寧元年 新羅眞聖女王七年甲寅誕生 錦城南 中興洞 十八歲辛未被幸 翌年壬申誕生 惠宗義恭王 太祖開國元年戊寅十一月封爲次妃 後四年辛巳十二月爲正妃 甲午薨 壽四十一이하기록 350餘字는 생략함

【참고】

장화왕후는 瞻의 12世孫이 아니다. 그리고 이외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당소종건녕원년 甲寅은 894년, 진성여왕7年癸丑은 893년, 18歲辛未는 911년, 翌年壬申은 912년, 태조개국원년戊寅은 918년, 次妃가 되고 4년후 辛巳921년 正妃가 되고 甲午934년 흥(薨)이라 하였다.)

【본문】 本文

二十四世子賢輔 字應夫 號克齋 宋孝宗乾道四年 毅宗22년戊子生 早擢文科宰白川 高宗三年丙子與弟賢佐,賢弼 討契丹 以勳 封海州君 配月城李氏 兵馬使 大運女 (長子宗寅, 次子淑珪, 三子寧, 四子淑富)

二十四世子賢佐 字應儒 宰開寧 封庇安君 又封 同福君

二十四世子賢弼 字應男 寶城君 又封 和順君

【참고】

二十四世 현보는 구보에 없는 자(字), 호(號), 생년, 배위 기록이 생기고 제(弟)현좌, 현필은 자(字)만 생겼다.

(南 송나라 효종건도4年은 1168년, 고려의종22년戊子是 1168년, 고려고종3年丙子是 1216년이다.)

【본문】 本文

二十五世淑珪 (현보二子) 以上載於公之所傳統系錄故 仍而傳之而公封貫羅州故 別於下章以公爲羅州吳之先祖而更起一世焉

【해설】

25世숙규 공(公)께서 통계록(統系錄)을 전(傳)하고자 以上에 기록했으며, 공(淑珪)의 관(貫)을 나주로 봉(封)한고로 別於下章에 공(淑珪)이 나주오씨 선조로 되어 있어 다시 一世로 일으킨다 하였다. (참고 숙규공의 방주는 1. 30세계도, 2. 오씨상고세계, 3. 오씨대동보, 4. 오씨본원 4개가 각각 다르다)

【고증】

『정묘보』 기록은 吳淑珪進士 高麗中葉人 配××鄭氏 父中郎將寶儒이며.

『경오보』 기록은 中祖吳淑珪 高麗中葉人進士 配××鄭氏 父中郎將寶儒로 되어 있다.

【2책 총괄 고증】

- 필사본 나주오씨연방세고를 大善방조께서 炳夏(夏洙)氏 질(姪) 漢教(根漢)氏께 필경제책을 의뢰 하여 발행된 것이다, 그 사실을 인지(認知)한 것은 2003년 편저인 등(編著人等)이 『나주오씨연원실록』을 편찬하면서 道根족형을 만나서 연방세고 입수에 대한 대화중 道根족형께서 수년전 상구리 吳漢教씨를 심방하여 나주오씨연방세고를 필경한 경위를 물었는데 本人은 방조이신 大善족대부 의뢰로 필경제책(筆耕製冊)하였을 뿐 내력(來歷)은 모른다고 하여 소득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중에 인지하였다.
- 오침은 신라경명왕(917~923)때 동래하여, 후한건우(947~950)때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었는데, 다시 신라지증왕 원년(500)에 동래 하였으니, 신불(神佛)이다.
- 1700년대 구보의 10世방은 弟明, 盼 三兄弟이고 字, 號가 없으며, 11世희는 독신이며 字, 號가 없고, 24世현보, 현좌, 현필은 字, 號가 없다. 2011년 오씨유래전거집

111p~131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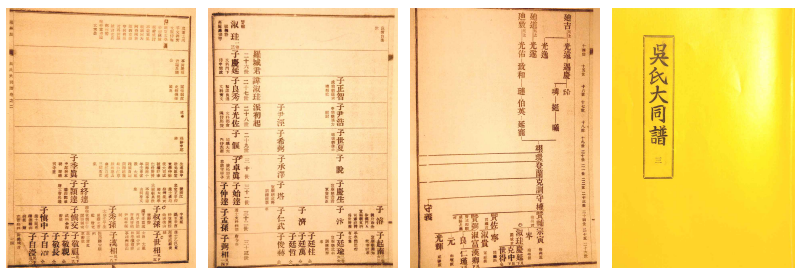
- 사정공파 炳夏氏는 1953년 조작한 필사본 나주오씨연방세고 세 번째에 羅州吳氏 南來事蹟〔계사춘정월기망후일(1953.1.16.) 불초후손炳夏근기〕글을 쓰고, 휘탁진조께서는 1397년 동 필사본 나주오씨연방세고 11번째에 吳氏三十世系圖說〔시흥무30년정축3월9일(1397.3.9.) 금성군五世孫卓眞止筆〕글을 썼다. 그런데 글을 쓴 시차(時差)가 556년이고, 연령(年齡)차는 597년이다. 그리고 炳夏氏의 파보초보(派譜初譜) 임자보를 1912년에 발행 하였는데 그 파보상의 上祖 哲佐-益師-敬眞기록이 있고, 23번째 吳氏上古世系 말미에 子哲佐-子益師-子敬眞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1397년에 작고하신 諱卓眞祖께서는 쓸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炳夏-大善 두분(兩人)이 휘탁진조(諱卓眞祖)의 명의(名義)를 차명(借名)한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이상의 기록들이 조작한 물적 증거다.
- 파조이신 송은당공(諱卓眞)께서는 직계후손으로부터 누명을 입어 유택에 계셔도 불편하실 것이다.
- 나주오씨연방세고 조작일시를 1953년이라고 하는 것은 炳夏씨가 1905. 7.11. 출생하고 1976. 8. 12. 졸(卒)하였으며, 炳夏氏 생전 癸巳春이 1953년이다. 그리고 諱大善은 1891.2.18.출생하고 1976.2.13.졸(卒)하였다.

(2011 오씨유래전거집 257p~297p 참조) (나주오씨연원실록 제9장 참조)

- 三君吳氏는 1700년대 自派의 구보세계(舊譜世系)를 번복하고 1900년대 후반 신보세계(新譜世系)에 조작한 吳氏上古世系를 인용(引用)하여 나주오씨선조 휘부순 다련군, 장화왕후, 휘오숙규공을 보적침탈(譜籍侵奪)하였다. (신구족보참조)
- 현보 字應夫는 사실이 아니다. 吳應富는 본관과 출생년 기록이 어떤 문헌에도 없다. 그리고 字는 족보방주에나 쓸 뿐 사기(전쟁일기)에 실명(實名) 대신 字를 쓰지 않기 때문에 吳應富는 그분의 本名이지 현보(賢輔)의 字가 될 수 없다.

(2008년 나주오씨연원실록 284p 참조)

【3책】 오씨대동보 요점 (吳氏大同譜 要點)



【본문역문】 本文譯文

오씨대동보는 1962년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 문양공 덕산사 경충당(景忠堂)에서 도유사 吳大善께서 근서(謹序) 발행하면서 本 吳氏大同譜에 한국오씨 중 해주,나주,평해 三派를 해주군의 후손으로 동북, 군위 二派를 동북군의 후손으로 보성, 화순, 함양, 장흥, 두원 五派를 보성군의 후손으로 만든 초라한 十本貫의 大同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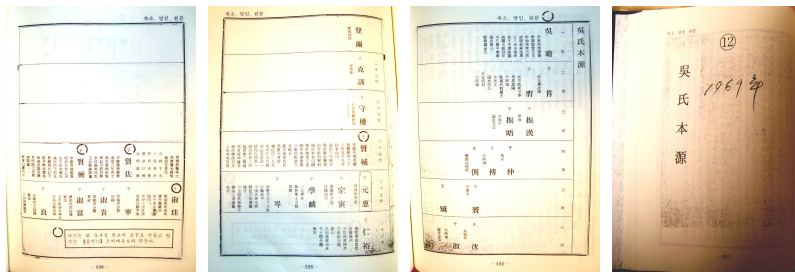
○ 1953년도 조작한 나주오씨연방세고 책속에 있는 吳氏上古世系를 전재(轉載)하고 추가로 가필한 실적(實績)없는 기록들을 실적있는 사실로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겨우 十本貫이 吳氏大同譜를 발행하면서 나주오씨 정묘보(丁卯譜)와 경오보(庚午譜)를 아래와 같이 완전히 번복하였다.

☐ 오씨대동보 조작의 요점

1. 나주오씨 시조를 오침(吳瞻)으로 조작 하고,
2. 나주오씨 선조 휘부순을 10세방(昉)으로 다련군을 11세희(禧)로 조작 했다.
3. 장화왕후 나주오씨 다련군 女를 오침의 12세로 조작 하고,
4. 羅州吳氏中祖 吳淑珪公을 현보三子로 조작한 "오씨30세계도-오씨상고세계" 와 또 다르게 조작한 방주기록을 적시한다. ○호 금곡 고려고종갑술 진사(1214년) 丙子年 (1216)문과 보문각시제 정당문학 辛卯年(1231)이종성부사 토평몽고난 참적아대아득양 장 승 서경유수 봉금성군 재봉 나성군 이 병부상서贈평장사 시 문정공(諡文定公) 호 화 찬란하다.
- ⑤ 中祖 吳淑珪子를 慶延, 克中, 世得 三형제로 조작하고, 吳瞻을 한국오씨 시조로 만들기 위하여 본 吳氏大同譜에,
- ⑥ 우리선조 富純을 10세로-多憐君을 11세로~中祖淑珪를 25세로-諱慶延을 26세로-諱良秀를 27세로-諱光佐를 28세로-諱偃(1世祖)를 29세로-諱卓眞, 諱季眞, 諱敬眞을 30세로하여 우리一世祖偃을 三君吳氏一世武惠公吳瞻으로 바꿔 나주오씨시조 諱偃을 瞻의 후손으로 조작했으며,
- ⑦ 諱卓眞子를 始達, 仲達, 終達 三형제로 조작하고,
- ⑧ 1953년에 吳炳夏氏와 공저한 나주오씨연방세고 羅州吳氏世系에는 사정공파, 先系를 『哲佐-益師-敬眞』으로 만든 것을 1962년 5월 壬寅譜와 8월 오씨대동보에서「益師」를「倜」로 고쳐서 『哲佐-倜-敬眞』으로 번복 조작하였다. 그리고 그후 그것을 근거로 1981년 신유대동보에 一世倜로 부실등재 하였다.
- ⑨ 이상의 吳氏大同譜에 의하면 잉태출생(孕胎出生)한 일 없는 조상 『휘숙규子 克中, 世得 二人』 『휘탁진子 始達, 終達 二人』 『사정공파 哲佐, 倜 二人』 합 六人을 송은당

공 후손 諱大善 사정공후손 諱炳夏 두 분의 붓(筆)끝으로 1961.8.5. 출생하여 우상숭배한 반인륜지행(反人倫之行)을 역대 대종회는 바로잡지 않고 방조(傍助)하더니 끝내는 30세계도설을 조작한 諱大善子 仁洙氏가 구흥룡회지 15p에 송은당 오탁진 祖께서 1397년 30세계도설을 작성하였다고 기록하여 선동하는 사람을 羅州吳氏大宗會長으로 선출하였다. 누구를 위한 대종회인지 알 수 없다. 나주오씨 대종회는 부적격자(오인수)인 대종회장을 경질하기 바란다.
(2011년 오씨유래전거집 228p 282p 316p 323p 참조)

【4책】 오씨본원 조작의 요점 (吳氏本源 造作的 要點)



【본문역문】 本文譯文

오씨본원(吳氏本源)은 1969년 오씨대동종친회장 吳潤煥 근서(謹書)로 발행하였다.

諸吳氏들의 족보는 1700년대 발행하였는데, 吳氏本源을 1969년에 발행하면서, 조작한 오씨대동보를 전재(轉載)하여 1747년 발행한 정묘보 나주오씨 시원을 완전히 번복하고, 정묘보上卷 『나주오씨족보유실부집사적기』에 명기된 우리의 선조 휘부순 다련군 (장화왕후) 휘숙규공을 오씨본원 一世吳瞻의 후손으로 조작했다. 그중 中祖吳淑珪公의 방주기록(傍註記錄) 조작을 밝힌다.

- 1747년 『나주오씨족보一卷』 첫머리 吳淑珪公의 방주 기록이다. (羅州吳氏原譜.)
- 吳淑珪 進士高麗中葉人 配××鄭氏 父中郎將寶儒다.
- 1969년 오씨본원 상의 賢輔五子 25世 吳淑珪의 방주 기록이다. (非正史吳氏本源)
- 吳淑珪 羅城君吏部尙書 分籍羅州 次子克中 還籍海州 克中十世 次孫眉壽 分籍平海로 왜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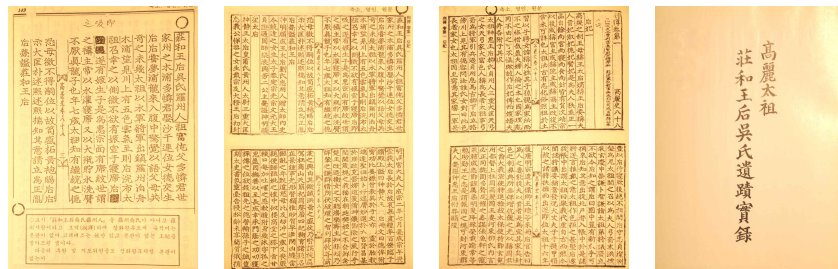
※ 三君(해주 보성)吳氏는 自派의 구보를 무시하고 (사실무근한) 나주오씨가 해주오씨에서 분적(分籍)한 작은 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묘보 오숙규공의 방주를 완전 번복하고 조작했다. 편저자들(編著者)은 조작된 오씨본원을 부정하고 배척한다.

(2011년 오씨유래전거집 252p 294p 314p 336p 참조)

【5책】 장화왕후 유적비와 유적실록 왜곡



高麗太祖妃 莊和王后吳氏遺蹟碑
所在地:羅州市 松月洞(市廳構內公園)



【원문역문】 原文譯文

1992년 단오절 원광대학교 교수 여산후인(礪山後人) 송준호 근서(宋俊浩 謹序)로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전위원) 발행한 고려태조비장화왕후오씨유적실록 서문에 의하면 유적비명(并序)을 1989년(己巳仲夏)에 고려태조비장화왕후오씨유적비명(高麗太祖妃莊和王后吳氏遺蹟碑銘)을 장흥후인(長興後人) 위민환근찬(魏民煥謹撰)으로 1991년(辛未) 10월 오씨, 광주, 전남대동종친회에서 근수(謹豎)하였다. 그런데, 비문(碑文)은 고려태조비장화왕후오씨유적비명(高麗太祖妃莊和王后吳氏遺蹟碑銘)이고 비신(碑身)은 고려왕건태조비장화왕후오씨유적비(高麗王建太祖妃莊和王后吳氏遺蹟碑)이다.

【왜곡의 환경】 歪曲의環境

1. 장화왕후오씨유적비 전면(前面)에는 본관없이 고려왕건태조비장화왕후오씨유적비(高麗王建太祖妃莊和王后吳氏遺蹟碑)라고 새겨 입비(立碑)하고.
2. 좌우후면 (左右後面)에 장화왕후오씨는 완사천 곁 흥룡동에서 세거(世居)해온 호족 오씨 집안 따님으로 부친은 다련군 휘희(多隣君 諱禧)이며, 조부의 휘(諱)는 방(昉)인데 자(字)를 부돈 이라하였다 라고 왜곡 하였다.

『多隣君은 어느 문헌에도 휘자(諱字)가 없으며 부순(富純)역시 방(昉)이라는 휘자(諱

字)가 없고 자(字)나 호(號)가 없다.』 그리고 희(禧)와 방(昉)은 첨(瞻)의 후손일뿐 장화왕후나 father다려군 祖부순은 첨(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오씨의 선(先)은 고대중국 황제의 손(孫)인 고양씨(高陽氏) 전옥의 후예 오기(吳起)의 후손인 휘첨(諱瞻)이 동래(東來)함으로써 동방의 오씨시조가 되는데 『다려군은 그의 후손이며,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사는 오씨는 모두 이의 후예들이다.』 라고 왜곡하여 나주오씨시조를 오첨으로 왜곡하였다.
4. 오씨, 광주, 전남대동종친회가 근수(謹攄)한 황황록(皇皇錄)은 흥릉동 완사전은 우리 역사상에 살아 있는 吳氏의 중흥지로서 『오왕후(吳王后) 비조의 휘첨(諱瞻) 무혜공(武惠公)과 조부 휘는 昉이요 字는 부돈(富純)이며 부친 다려군 휘희(多憐君諱禧)의 유서 깃든 땅이다.』 라고 시조를 왜곡하였다.

【무시된 고려사】

1. 왕건태조와 장화왕후 상봉회상도 왜곡을 석명(釋明)한다. 버드나무 아래 장화왕후 ~ 군마곁에 왕건태조 운치있어 보이지만 사실과 전연 다른 상봉 회상도다.

▣ 上의 영인(影印)한 증거원문(證據原文) 고려사를

참조 요망함

태조가 장군이 되어 병졸을 거느리고 정주(강화고호江華古號)를 지나다 말(軍馬)과 오래된 버드나무 밑에 쉬는데 后(신혜왕후, 神惠王后)가 길가에 서서 냇위(川上)을 바라보는 덕기와 용모가 있어 너는 누구씨의 딸이냐고 물으니 이 읍내(邑內) 장자집 딸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그곳에는 완사천(浣紗泉)이 없다.

2. 태조가 수군(水軍) 장군이 되어 배를 나주 목포에 정박하고 주상(洲上)을 관찰하다 오색구름(五色雲氣)이 있어 이르러(가)보니 后(장화왕후, 莊和王后)가 포목을 빨래하고 있었다. 태조가 불러 총애하였다. 그런데 나주시립공원 태조와 장화왕후 상봉 조형물과 실록책에 태조왕건과 장화왕후의 상봉회상도는 고려사 기록과 다르게 后 (장화왕후, 莊和王后)는 수양버드나무 밑에서 물을 떠 들고 있고 태조는 군마(軍馬)곁에서 물을 받으려 하고 있다. 수군장군이 배는 정박하고 말(馬)을 타고 갔단 말인가? 이렇게 고려사가 무시되었다.
3. 오연수씨(吳連洙氏 羅州吳氏) 고소사건이 있기 이전(以前)의 일이다. 1991年(辛未)10月 『高麗王建太祖妃莊和王后吳氏遺蹟碑』를 건립할 때 三君吳氏들이 고려사에 있는 『莊和王后吳氏羅州人』을 "나주에서 사는 羅州사람이지 羅州吳氏가 아니다" 라고 억지 주장하여 나주시립공원(羅州市立公園)의 『장화왕후오씨유적비』는 本貫없이 건립했다.

4. 유적실록 149p에 위 증거원문 左측면(三페이지) 하나만 수록하고 오역(誤譯)하였기에 차례에 반증(反證)과 대비용(對比用)으로 一,二,三,四 페이지를 수록하였다.

보시다시피 上 증거원문 고려사(高麗史) 八十八 열전권(列傳卷) 第一페이지에 신혜왕 후유씨정주인(神惠王后柳氏貞州人)이 있고 第三페이지에 장화왕후오씨나주인(莊和王后吳氏羅州人)이 있다. 그런데 장화왕후만 나주오씨가 아니다 라고 억지 주장하고, 장화왕후오씨유적실록책 149p에 고려사 열전권(列傳卷) 第一페이지(第二페이지) 『神惠王后柳氏貞州人』 기록을 빼고 열전권(列傳卷) 第三페이지 하나 『莊和王后吳氏羅州人』 만 수록해 놓고 三君吳氏들이 장화왕후는 羅州吳氏가 아니고 羅州사람이라고 억지 주장하여 羅州本貫을 못쓴 것이다.

5. 『莊和王后吳氏羅州人』 이 나주오씨가 아니면 『神惠王后柳氏貞州人』 도 정주유씨가 아니고 정주에 사는 정주사람이다. 그렇다면 고려사 후비열전의 태조비들은 전부 성(姓)만 있고 본관이 없는 女人들이란 말이다. 언어도단이다. 그러므로 고려태조비장화왕후오씨유적실록은 정사(正史)가 아니다. 앞으로 장화왕후오씨유적비는 개수(改竄)해야 하고. 장화왕후오씨유적실록은 수정 발행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지금의 유적비와 유적실록은 역사적 기념물이 아니고 正史가 아니다. 그러므로 羅州市와 三君(해주군,보성군,동북군) 吳氏는 심사숙고 하고. 시급히 시정 조치 해야 한다.

(2011. 오씨유래전거집 371p~390p 참조)

【6책】 오씨득관고 중요부분(吳氏得貫考重要部分)

【본문요약】 本文要略

본 오씨득관고는 해주 吳炳鐸氏가 1999년 프린트하여 발행하였다. 그리고 그 原文은 『나주 오씨연원실록』 444p~450p에 전문(全文)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비논리적(非論理的)인 부분만 전재(轉載)한다. 三君吳氏는 1980년 들어 『나주오씨연방세고』를 입수하여 조작된 것임을 감지하고 나주오씨가해주오씨에서 분적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1984년 『오씨대종사고』 발행을 시작으로 자문(自門)의 1766년~1767년의 구보세계(舊譜世系)를 무시하고 1984년 이후 발행한 신보오씨세계(新譜吳氏世系)에 나주오씨선조 『諱富純 多憐君 莊和王后 中祖 淑珪』를 보적침탈하고 해주오씨가 나주오씨 큰집으로 조작한 것을 오씨득관고는 사실로 호도하였기에 적시(摘示)하며 석명(釋明)한다.

【왜곡 호도】

이 글은 사실을 호도한 내용의 글이다. 지금부터 600년 전에 쓴 오씨30세계도설 원문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認定)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 ① 하나는 무혜공 동도설(東渡說)인 上系를,
- ② 둘째는 24世 해주군, 동북군, 보성군으로써 비로소 득관 되었음을,
- ③ 셋째는 현보子 인유(仁裕) 초휘종인(初諱宗寅) 차자岑 三子淑珪(나주오씨 시조)로 되어 있다.

《가》 吳氏三十世系도설원문(圖說原文)은 송은당 휘탁진 上祖의 저서인 나주오씨연방세고라는 사책(史冊)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원본은 6.25동란중 유실되고 그 필사본이 나주공산면 상방리 吳炳淳氏댁과 광주시 산수동 吳採煥氏댁에 각각 소장 되어 있다. 오씨30세계도설은 휘탁진 上祖께서 이미 600여년전에 서기1397년 홍무30년에 우리 오씨의 上系를 밝혀 놓으신 최초의 전거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우리오씨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창제하신 가장 소중한 유산인 것이며 그야말로 신성불가침의 전거이며 우리 大宗史의 원보(原譜)가 되는 것이다.

모든 오씨들은 이와 같은 훌륭한 어른을 존경하고 나주오씨들은 빛나는 上祖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할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異議提起)는 씨족사에 대한 반역이다.

(잠깐) 참으로 낯 뜨거운 극찬이다. 편저자 吳成根 吳恒植은 이의제기하고 부정하고 있으니 씨족사에 대한 반역자인가?

《나》 21세손 吳大善이 1962년 임인년에 작성한 오씨대동보序 (별첨서류 제3호) 7행에 지증왕조에 무혜공 諱瞻이 처음으로 東來하였으니 모든 吳氏의 先이 되므로 첨(瞻)은 이땅의 모든 오씨의 조상임을 立證한 것이며 또 서문 10행에 24世 해주군현보, 동북군현좌, 보성군현필에 이르러 처음으로 본관을 득봉(得封)하고 분적(分籍)하였다. 해주, 나주, 평해 3파는 해주군의 후예라고 써 있으므로 해주오씨, 나주오씨, 평해오씨는 해주군에서 분관(分貫)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고) 또한 오씨분파도에 의하면 현보의 子에 長子 仁裕(初諱宗寅) 次子岑 三子淑珪(나주오씨시조)로 되어 있다 라고 못을 박았다.

《다》 ★★★ 三君吳氏는 나주오씨연방세고(聯芳世攷)가 조작된 것임을 감지(感知)하고도 30세계도를 조작한 휘 탁진파 후손 모인(某人)과의 관계에 무슨 말 못할 깊은 속사정이 있었기에 이 엄청난 행위(行爲)인가 참으로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이다. 자문(自門)의 1700년대 구보(舊譜)를 번복하면서까지 조작한 나주오씨연방세고中 吳氏上古世系를 인용(引用)하여 羅州吳氏先祖를 보적 침탈해놓고 중요한 세가지 ① ② ③을 인정했다고 하였는데, 第三者가 휘탁진조 名을 차명(借名)하여 조작한 사실이 『나주오씨연방세고 3번째 글 羅州吳氏南來事蹟으로 밝혀졌으니』 三君吳氏는 자가

당착(自家撞着)하였다.

《라》 그동안 三君吳氏는 1984년 발행한 吳氏大宗史考를 시작으로 1900년대 후반에 발행한 신보오씨세계(新譜吳氏世系)에 나주오씨선조 四人을 보적(譜籍) 침탈하고 나주오씨후손을 다음과 같이 전면에 내세웠다. 吳氏大宗史考는 발행인을 羅州 吳璟烈氏로 장화왕후오씨유적비와 장화왕후오씨유적실록은 발기인을 전면에 羅州 吳道根氏, 吳連洙氏를 그뒤로 海州 吳然奎氏 樂安 吳炳辰氏 海州 吳炳鐸氏 순으로 하여 오늘의 책임전가를 사전 도모하는 치밀한 진행이었다.

《마》 그리고 고려사에 장화왕후는 羅州人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관(地官)인 손석우가 1994.1.15일 자로 발행한 책명 下卷에 장화왕후의 성은 吳가이며 본는 낙안이라고 쓴 것을 나주오씨후손 吳連洙氏 외9인이 역사를 왜곡하였다고 서울지법에 제소하여 1996.4.23. 장화왕후는 吳氏이며 羅州人일뿐 낙안 吳氏는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손석우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한 것은 장화왕후 때는 본관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한 것이라고 또다시 왜곡하였다.

- 참고 = 羅州人일뿐 이라고 판시한 판사는, 한학자(漢學者)나 보학자(譜學者)가 아니므로 문장의 문맥(文章文脈)상 羅州人은 本貫 羅州吳氏라는 뜻을 모르고 羅州人일뿐 이라고 판결한 것을 오역(誤譯)하여 또다시 거듭 왜곡하였다. (서울지법 약식명령 96고약 10383 사자명예훼손)

(2008년 나주오씨연원실록 493p~508p참조)

(2011년 吳氏由來典據集263p~297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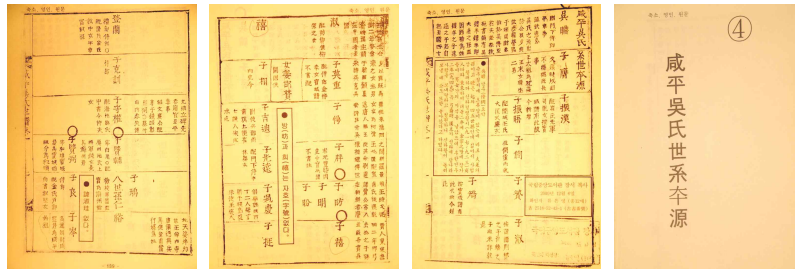
【3,4,5책 총괄적 고증】

- 오씨여 우리는 하나다의 책은 나주오씨를 해주오씨 작은 집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오침세계로 끌어 들이고 30세계도를 송은당공께서 오씨의 상계를 밝혀 놓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그야말로 신성불가침의 전거이며 우리 대종사의 원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오국계도(吳國系圖)에 부차의 자손을 이의(夷義) 루양(鑊羊) 축(逐)기(起) ~ 침(瞻)으로 하였는데, 부차의 아들 鴻, 友, 地는 월왕구천에게 볼모로 피살되고 유배되어 손자가 없다. 그런데 위와같이 왜곡하였다.
- 三君吳氏들은 1900년대 후반 新譜世系를 1700년대 舊譜世系로 환원(還元)해야 한다.
(2011년 吳氏由來典據集 263p~265p 272p~273p 302p~303p 395p~437p 참조)

【特書】

- ▣ 한국 모든 성씨를 총망라(總網羅)한 각종성씨보(各種姓氏譜)는 성씨시원(姓氏始原)의 발현시점(發顯時點)이 신구보(新舊譜)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三君(해주,보성,동북) 吳氏는 신구족보 오씨세계(新舊族譜 吳氏世系)가 다르고, 남의 조상을 침탈하였다.
- 첫째 18세기 舊譜는 始祖吳瞻 동래시점이 신라경명왕(917~923)시 인데, 20세기 新譜는 신라지증왕원년(500)이다.
- 둘째 912년에 탄생한 고려혜종의 외조부 다련군과 외증조부 휘부순(나주오씨선조)을 917년~923년 사이에 동래한 吳瞻의 후손으로 吳淑珪公을 賢輔二子로 침탈하여 新譜世系에 수록하여 유전(遺傳)하고 있다.
- 셋째 三君吳氏의 씨족사 문헌들이 하나같이 나주오씨를 해주오씨에서 분적한 작은 집으로 문헌조작을 하였다.

【7책】 三君吳氏新譜 왜곡을 증거하는 咸平吳氏世系本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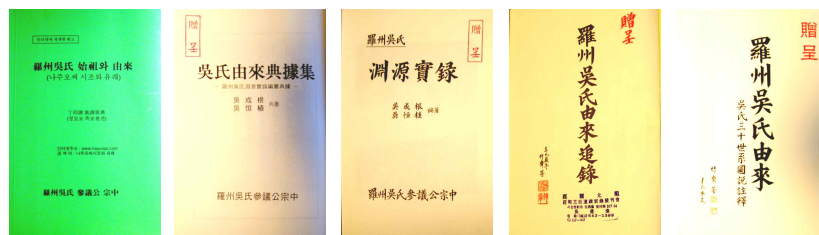
【원문역문】 原文譯文

함평오씨세계본원은 2000.12.6일 발췌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복사 古2518-52-43-1 인데 발행년도 기록이 없었다. 吳瞻 방주기록 = 증 문하시랑평장사 시 무혜공 오씨원출(吳氏源出)은 姓姬氏공숙조의 子 周太王에서 泰伯을 吳氏로 封하여 傳하며 夫差에 이르고, 춘추절서편에 오루양(吳縷羊)이 있는데 루양은 곧 부차의 孫이다. 그리고 루양의 아들은 遂요 遂의 아들은 起요 起로부터 45世孫 瞻에 이르러 少時에 무역상으로 회수(淮水) 江名 泗水地方을 왕래하다가 신라경명왕시(917~923)에 또 상인따라 東으로 왔다. 태봉2년에 김종지 女에 장가들어 男女간의 자식을 두었다. 딸은 아찬왕비(阿飡王妣) 후배(後配) 황보씨(皇甫氏)요 후한건우二年(948년) 즉 궁예시 한주(漢主) 한나라 왕이 신라국에 청원하여 당인(唐人)들을 보내 달라고 하여 신라왕이 국서를 쫓아 상인들을 모두 돌려보낼 때 공(瞻)도 돌아갔다. 공(瞻)의 자손이 중국에 있는 者가 송나라 때 까지 吳克, 吳安詩, 吳升, 吳獵이 상계전세(相繼傳世)되고 조선에 있는 者는 응(膺)이다. 각 본관(各本貫)의 오씨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였는데 보성오씨족보 첫번째 오성약사(나주오씨연원실록 465p)와 오침동래사실 기록이 같다. 이상의 기록들이 오침동래를 신라경명왕시(917~923년)로 명기전(明記傳)하고 있다.

【책임소재】 責任所在

三君吳氏의 신보왜곡(新譜歪曲)한 원인제공은 나주오씨문족이기는 하나 나주오씨연방세고 中의 羅州吳氏南來事蹟으로 조작을 감지하고도 남의 조상을 침탈한 것은 그쪽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같은 사실을 18世紀 구족보원전(舊族譜原典)과 20世紀 신족보(新族譜)및 관련문헌들이 증거하고 있으므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三君吳氏는 신보세계(新譜世系)를 구보세계(舊譜世系)로 환원할 것을 정중(鄭重)하게 요청합니다.

오씨유래를 조명한 현대사 (吳氏由來를 照明한 現代史)



◎ 上記 조명한 현대사 간행 5권의 증거문헌

1. 나주오씨 유래 2001.8.16. 발행 나주참의공종중 영성재
2. 나주오씨 유래 추록 2002.1.15. 발행 나주참의공종중 영성재
3. 나주오씨 연원실록(全) 2008.10.20. 발행 나주오씨참의공종중
4. 오씨유래전거집(全) 2011.11.30. 발행 나주오씨참의공종중
5.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 (인터넷에 게재한 原文) 2012.2.10. 발행 나주오씨참의공종중
6.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 (증보판) 2012.5.20. 발행 나주오씨참의공종중

현안(懸案) 및 끝맺음

【현안】



【나주오씨사적비】

羅州吳氏 사적비(事蹟碑)는 1996年 7月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산102-1번지(평가산)

에 건립하였는데, 비문(碑文)이 사적(事蹟)의 개념(概念)과 다르고 나주오씨 정묘보 족보 원전(族譜原典)을 경시(輕視)하였다. 그래서 나주오씨사적비서두(羅州吳氏事蹟碑書頭)에 『우리나라 吳氏는 一源으로 신라지증왕원년 서기500년에 중국전국시대의 유명한 병법가인 吳起의 후손되는 첨(瞻)이 배를 타고 동도하였다하니 이것이 吳氏의 기원(起源)을 이룬다. 그후 23세조 휘수권(諱守權)이 三兄弟를 낳았으니 현보는 해주군이요, 현좌는 동북군이시며, 현필은 보성군 삼군설단 충남공주 매년 음3월6일 시제(時祭)하시다. 휘현보가 生五男하니 계자(季子)인 진사숙규(進士淑珪)가 나주파시조(羅州派始祖)라는 기록이 있으나, 고증이 미상하니 후일명증지사(後日明證之事)라』라고 사적비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다. 이문장은 고증여부를 떠나서 羅州吳氏 사적비(事蹟碑)에 쓸 문장이 아니다.

그리고 사정공파 1929년 己巳파보 서문을 휘준선(諱駿善)께서 근서(謹書)하였는데, 휘양수(諱良秀)의 밑에 휘광좌(諱光佐)와 휘철좌(諱哲佐)를 兄弟로 병서(竝書)하여 금차(今次)에 휘철좌(諱哲佐)를 상대세계(上代世系)(윗대 선조)로 등재한 것은 우리 門中の 다행한 일이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휘준선(諱駿善) 근서(謹書)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왜 없을까? 철좌-제(哲佐-提)는 유령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나주오씨세계(羅州吳氏世系)와 무관한 내용의 기록들을 본(見) 나주오씨 후손들은 자기뿌리 정체(正體)와 세계(世系)에 대하여 의혹(疑惑)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나주오씨사적비(羅州吳氏事蹟碑)를 시급히 개수(改竄)하여 나주오씨 본연의 정체성과 올바른 세계전통(世系傳統)을 하도록 해야 한다.

▣ 羅州吳氏 (족보원전) 정묘보의 『始祖 및 本貫』 유래를왜곡하여 大韓民國 市中 도서관에 비치한 姓氏譜中 몇 개를 거론하면 1989년 뿌리와 열, 1989년 名家의 族譜 1996년 姓氏의 故郷, 1998년 韓民族大姓譜등은 羅州吳氏始祖를 吳淑珪로 기록하고 있으며 아래 ① ②개의 姓譜는 구체적이다. (이상의 정보에 나주오씨문족이 관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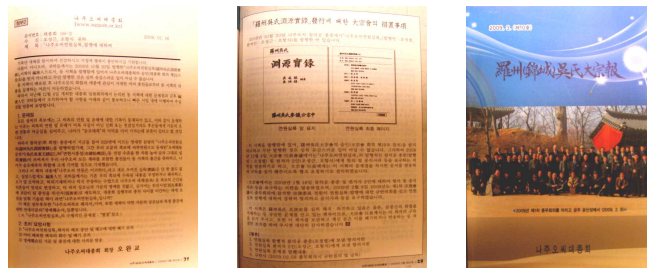
1. 1977년, 韓國人의 族譜 나주오씨는 500년(신라지증왕원년)에 동래한 先祖瞻의 24世孫 현보(해주오씨시조)의 아들 五兄弟가 각각 분적(分籍)시 第五子 淑珪가 분적한 것이 확실하나 그 후 3世의 世系가 분명치 않고 年代의 차이가 있으므로 淑珪를 始祖로 하고 고려에 중랑장을 지낸 그의 5世孫 偃을 1世로하여 世系를 이어 오고 있다 하였다.
2. 1989년, 韓國族譜大典은 羅州吳氏 始祖 諱 吳淑珪(진사공) 一世祖 諱偃(중랑장) 시조 및 본관 유래 (나주지명 기록 생략) 『羅州吳氏世譜』에 의하면 始祖는 고려중엽에 진사를 지낸 吳淑珪로 전하며, 중랑장을 역임한 偃을 1世祖로 하여 선조들의 세거지인 羅州를 本貫으로 삼아 世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우리와 우리후손들은 위와 같이 잘못된 氏族史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성씨총연합회" 에서 ②번 한국족보대전 나주오씨편을 복사하여 원고용으로 大

宗會로 보내주고 이것을 접수한 大宗會는 정묘보『기록을 몰라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된 始祖기록을 사실로 재확인하고 역대인물만 수정 제출하여,

- 2005년, 한국성씨총감의 羅州吳氏篇에 『羅州吳氏世譜』에 의하면 『始祖』는 고려중엽에 진사를 지낸 『吳淑珪』라고 정면으로 舊三譜를 부정했다. (2008년 나주오씨연원실록 741참조)

2009.3. 제10호 나주(금성)오씨대종보



【사실규명】

이 같은 문헌들을 규명하지 않으면 正史로 인정되고, 나주오씨 구삼보(舊三譜)는 잘못된 족보로 오인 받고 나주오씨 시원(始原)과 세계(世系)는 오침의 시원세계(始原世系)로 변경되고 말 것이다.

때문에 편저인등은 사실을 규명 하기 위하여 ① 나주오씨유래, ② 나주오씨 연원실록을 발행하였는데, 나주오씨 대종회가 2009년 大宗報 제10호 29p~39p의 경고서한 및 대종회 조치사항으로 연원실록을 불온서적(不穩書籍)이라 매도하고 구독을 못하게 하였다. 누구를 위하여 대종회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후손들은 사색(思索) 해야 한다. 이리하여 종친들을 깨우치지 못하였음으로 再三 깨우치려고 2011년 吳氏由來典據集을 발행했다.

【참고】

2009년 나주(금성)오씨 대종보 제10호 참조, 2008년 羅州吳氏淵源實錄 27p 710p~715p 745p 참조

『특별문헌』

함양오씨무인보 오씨족보 변정론 (吳氏族譜辨正論)

오씨족보의 전거사료(典據史料)

【참고】 아래 () 표속에 글은 편저인들이 기록한 것임

전거	사료명	주제인물	년대	성관	참고사항
3	고려사열전	장화왕후	894-934	동방오씨 (성관을 왜곡했다)	세거지 羅州
5	오씨30세계도	吳卓眞	1397	나주오씨	원본불전 필사본 나주 오씨연방세고 등재
17	나주오씨연방세고	吳炳夏	1893 (生卒年 不知로 錯誤)	나주오씨	오씨30세계도 등재되어 있음
20	1. 오씨대동보	吳氏大同宗親會	1962	13관 오씨 (13관은 착오다.)	오씨30세계도에 의거 편찬
	2. 오씨본원		1969	(대동보는 10본관이다.)	
24	오씨대종사고	吳永煥	1984	해주 京파	오씨30세계도 상세히 서술

● 諱吳大善 1891年 辛卯2月18日生~1976年 丙辰2月13日卒

● 諱吳炳夏 1905年 乙巳7月11日生~1976年 丙辰8月12日卒

☑ 사료비판(史料批判)

○ 오씨30세계도는 나주오씨 시조 숙구의 五世孫인 탁진공(松隱堂)이 1397년(이태조6년 정축)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原本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그 필사본이 한지 (幅)18센티미터 (長)27센티미터 35면으로 된 나주오씨연방세고 라는 小책자 속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은 吳永煥氏의 오씨대종사(考)에 상술되어 있으므로 그중 중요한 몇가지를 略記하기로 한다.

그러나 諱卓眞公 소작의 原本이 전해지질 않아 우리로서는 이 30세계도를 소장해왔을 것이고 또 자기들의 족보편찬에 근거로 삼았을 羅州吳氏族譜를 통하여 그 실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羅州吳氏大同譜에 卓眞公의 行狀錄이 있다는 吳永煥氏의 설명이 있으나 羅州吳氏의 족보 丁卯譜(1747)의 卓眞항에는 進士로서 곡강에 처음와 살았다 라는 기록 외에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같은 책 안의 오씨래동문적기에도 吳潤甫 지석기(誌石記)와 吳相玉의 함양오씨족보序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30세계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로서 미루어 볼때 吳卓眞의 30세계도는 18세기초까지 羅州吳氏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책은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창 의 기병한바 있는 吳得隣의 十代孫 吳炳夏가 癸巳年에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자는 毛筆로 쓴것이 아니라

鐵筆로 필경(筆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필경기술이 도입된 시기는 19세기 말로서 작성시기 癸巳年은 1893년 또는 1953년에 해당된다… (以下省略)

- 上記와如히 정묘보 족보 오씨래동문적기에도 30세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 上記와如히 오씨30세계도는 1941년 신사보 편찬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 上記와如히 미루어 볼때 30세계도는 18세기 초까지 나주오씨에게는 알려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20세기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 上記와如히 함양오씨도 1893년 또는 1953년(癸巳年)에 오병하씨가 만들었다고 단정하였다.
- 上記와如히 함양오씨 문헌은 오씨30세계도(나주오씨연방세고)를 諱卓眞 창제로 보지 않았다.
- 上記와如히 나주오씨 연방세고 책속에 있는 吳氏三十世系圖 및 吳氏上古世系를 송은 당공파 諱大善과 사정공파 諱炳夏 兩人이 조작하였다. 그러므로 나주오씨후손이 아니 고는 타인(他人)은 그 조작을 한점 의혹없이 밝히지 못한다. 때문에 부득이 편저인들이 한점 의혹없이 밝혔다. 중랑장(휘계진)파는 정묘보 기록보전에 매진하라

『特書二』

◀ 나주오씨종친회는 이단(異端)이다. ▶

구흥룡회지 30세계도설의(오인수,오억근)기록문

1. 나주오씨대동종친회(약칭 나주오씨 대종회)는 문중을 대표하는 대표 기구이다.
2. 나주오씨대종회와 상반되게 준동(蠢動)하는 아래(新聞)사진 나주오씨종친회(구흥룡회)는 이단(異端)이다.
3. 나주오씨대종회는 정체성이 없이 그간 이단(異端)의 계략에 휘둘러 왔으며, 吳仁洙씨는 이단인 구흥룡회 원로 회원 이므로 대종회장은 부적격자인데 2012년 2월 종무회의에서 제7대 대종회장으로 추대하여 3월25일 정기총회를 통과 확정하였다.
4. 재력(財力)을 앞세운 이단(異端)인 나주오씨종친회(구흥룡회)는 자기네 원로 회원 吳仁洙씨가 대종회장으로 추대 되었으니 일단은 성공했다,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었으므로 자축하고, 앞으로 불장난을 계속할 것이다.



羅州吳氏宗親會(구흥룡회)는 이단(異端)이다

구분	명칭	현황	비고
1999.12.5. 창립	나주오씨대동종친회 (약칭나주오씨대종회)	나주오씨 문중 대표 기구	나주(금성)오씨 대종보 발행
2005.2.26. 조직	나주오씨 흥룡회	대종회를 이탈 하여 만든 이단	
2009.4.25. 변경	나주오씨대동종친회 (구흥룡회)	대종회를 둘로 만든 이단	나주오씨 흥룡회 지 발행
2012.1.20. 변경	나주오씨종친회 (구흥룡회)	명칭만 3번 바꾼 (구흥룡회) 이단	나주오씨 종친회 보 제01호 발행

1. 2012.1.20. 羅州吳氏宗親會報를 발행한 임원들의 성명과 인물사진, 가칭 한국오씨송조전(시조쟁탈전장소)을 조성하겠다는 조감도 등을 게재한 나주오씨종친회보를 광주광역시 오씨집성촌 각 경로당으로 (수신자名 없이) 무작정 우송하여 나주오씨 후손들을 혼란하게 하였다.

2. 나주오씨대동종친회(약칭 나주오씨 대종회)는 1999.12.5. 창립한 나주오씨문중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다. 반면 현 나주오씨종친회(구흥룡회)는 대종회를 이탈한 종무원장 吳根昌씨, 근원연구위원장 吳億根씨가 주동하여 2005.2.26. 조직한 이단이므로 종친들이 반기(叛起)하고 냉대하므로 명칭을 나주오씨대동종친회로 바꿔 2009.4.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나주오씨대종회를 둘로 만들고 나주오씨 흥룡회지(興龍會誌)를 발행하였다. 동회지(同會誌)의 기사중.

- 15p 제목 「송은당 오탁진 祖 1397년 30세계도설 작성」 오인수(본회 원로 송은당 17대손)
- 17p 제목 「뿌리 찾기 운동 모두 함께 1500년 역사 분명히 하자」 오억근(본회 원로 현 오씨대동종친회 총재)
- 23p 제목 「고려말 이전 훌륭한 선조님들 吳氏上祖 나주에서 지키자」 오근창(본회 원로)
- 이상 三人의 기록문 골자는 吳氏三十世系圖를 1397.3.9. 오탁진께서 손수 쓴 친서라며 휘부순과 다련군을 오침의 후손이라 하고, 중조 휘숙규공을 침의 24세손 현보(賢輔)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구삼보(舊三譜) 정묘, 경오, 임진보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대다수 종친들이 호응은 커녕 지탄(指彈)함으로 또다시 명칭을 羅州吳氏宗親會로 변경하여 2012.1.20. 羅州吳氏宗親會報를 발행하여 무작정하고 광주광역시 일원(一圓)의 오씨집성촌 경로당으로 우송하였다.

3. 나주오씨종친회보의 임원들 성명과 인물사진을 보면 그중에 나주오씨 문중을 대표할 만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조상은 정묘보 경오보 임진보에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나주오씨 후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왜 중조 숙규공의 후손 기일세 휘언 (起一世諱僊) 중시조를 부정하고 신라경명왕(917~923년)시 동래(東來)하였다는 吳瞻은 중국의 역사문헌이나, 오씨대통종보(吳氏大統宗譜)에도 없는 오침(吳瞻)을 나주오씨시조로 하여 부순(富純)과 다련군(多憐君)을 瞻의 후손으로, 中祖淑珪公을 瞻의 24세손 해주군 현보의 아들로 하여 해주를 큰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준동(蠢動)한 羅州吳氏宗親會(구흥룡회)의 임원이 되어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는가?

참으로 당혹스럽고 민망(憫惘)하기 그지 없다.

4. 吳仁洙씨는 구흥룡회를 개칭한 現 나주오씨종친회의 임원명단에는 없다 그러나 진실은 들어나는법 감출수 없다. 2009.4.25.발행한 이단(異端)인 나주오씨 흥룡회지 ●15p의 吳仁洙씨 기록문은 「송은당 祖께서 1397년(조선태조6년) 3월 9일 이른 새벽에 우리 오씨의 상고세계(上古世系)를 밝혀주는 30세계도설(吳氏三十世系圖說)을 손수 작성하시어 남겨 주시고 향년 90세를 일기로 서거(逝去)하셨다」... 하였으며, 공의 발자취는 조선성종대에 지제교 수찬 등을 역임한 금남최부(錦南崔溥)찬 송은당 행장이 있으며, 이행장은 금남문집과 나주오씨대동보에 수록되어 있다 라고 기록을 남겼는데, 사실과 다르므로 지금부터 이것을 징거(徵據)한다.

징거내용 (徵據內容)

★ 諱卓眞 行狀一部 ★

- 先生의 현손 참봉 彦國이(以其家傳請狀于寒暄金宏弼)그분(휘탁진)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여 집에 전하는 문서를 가지고 한훤 김굉필에게 행장 지어줄 것을 청하였는데 한훤(寒暄)이 붓을 잡을 형편이 아니므로, 이기가전(以其家傳)을 부(溥)나에게 보내며 부탁하였고 부(溥)나도 소시때부터 선생지풍(先生之風)을 들어 평소 흠양하였는데, 또 동지(김굉필)가 부탁하니 불문(不文)하지만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그 이기가전(以其家傳)을 상고하여 그 행장의 체제를 이루었다 하였다.
- 최부(崔溥)는 연산군조 1498년 무오사화로 함경남도 단천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 송은당공 현손 참봉 彦國은 당년 四歲 유아였다.
- 금남 최부찬 행장이 금남문집(錦南文集)과 나주오씨대동보에 수록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참봉 언국(彦國) 생년 졸년 현황

- 정묘보(1747년) 생년 졸년 기록없음 -나주오씨세보
- 경오보(1810년) 생년 홍치갑인생(1494년)-졸년 홍치을묘졸(1555.8.7.일) 나주오씨세보
- 임진보(1892년) 생년 홍치갑인생(1494년)-졸년 홍치을묘졸(1555.8.7.일) 나주오씨세보
- 기유보(1909년) 생년 홍치갑인생(1494년)-졸년 홍치을묘졸(1555.8.7.일) 송은당공파보

◆ 以上 구보(舊譜)의 世譜와 派譜는 족보원전(族譜原典)이다.◆

- 신사보(1941년) 생년 세조갑신생(1464년)-졸년 명종을묘졸(1555.8.7.일) 나주오씨세보
- 갑진보(1964년) 생년 세조갑신생(1464년)-졸년 없음
송은당공파보
- 신유보(1981년) 생년 세조갑신생(1464년)-졸년 명종을묘졸(1555.8.7.일) 나주오씨대동보

◆ 以上 신보(新譜)의 世譜와 派譜및 大同譜는 부실의 온상이다.◆

증거내용 (證據內容)

- 송은당공 현손 彦國은 1498년 당년 4세 유아가 김굉필을 찾아갔으며, 최부(崔溥)로부터 송은당공 행장을 받아 왔다. (不可)
- 김굉필은 자신이 붓 잡을 사정이 아니므로, 유배중인 최부에게 (염치없이) 부탁하여 행장을 지어주도록 하였다. (不可)
- 유배중인 최부는 (죄인 몸으로 사양하지 않고) 칠월삭조(七月朔朝)에 지어준 그 행장 중... 선생(휘탁진)의 저서 해동형승록(海東形勝錄)2권과 사행록(事行錄)5권을 집에 전한다고 하였다. (저서중에 30세계도설은 없다.)
- 吳仁洙씨는 이단인 흥룡회지 15p에 송은당 祖께서 1397.3.9. 이른 새벽에 오씨의 上古世系를 밝혀주는 30세계도설(三十世系圖說)을 손수 작성하여 남겨 주시고 90세를 일기로 서거(逝去)하셨다고 하였다. (不可) (병중 90 노인은 무기력 하여 1책 모필로 세서한 吳氏三十世系圖는 손이 떨려서 못쓴다.)
- 吳氏上古世系를 밝혀주는 「30世系도설」은 오씨들에게 가장 소중한 책인데, 최부찬 송은당 행장문 저서중에 없다.
- 오씨상고세계와 30세계도설이 들어있는 책은 1953년도 조작한 철필서 나주오씨연방 세고(羅州吳氏聯芳世攷)다.
- 1940년 전후 송은당공 행장을 諱大善께서 자작하고 1498년 崔溥께서 찬(撰)한 것으로 눈 속임을 하였다. [그리하여]
- 1981년 나주오씨대동보에 1498년 최부찬(崔溥撰) 송은당공 행장을 483년 만에 처음으로 수록하였다.
- 1725년(영조1년) 羅斗冬이 발행한 최부(崔溥)의 금남집(錦南集)에는 송은당공 휘탁진(諱卓眞) 행장이 없다. [그런데]
- 1997.5.15. 한국문집 편찬위원회 발행 금남문집(錦南文集)에 송은당 행장이 수록되어 있다. (아이러니다.)
- 나주오씨는 보록(譜錄)을 소실(燒失)하고 초보를 1747년, 경오보는 1810년, 임진보는 1892년, 신사보는 1941년 각각 수보하였는데 송은당공파는 그때 마다 송은당 행장을 이유없이 수록하지 않고, 1981년 신유대동보에 처음으로 수록하였다. 왜 그랬을까? (최부찬 행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 송은당공파는 갑진(1964년)파보를 하면서 최부찬 행장을 수록하지 않고, 前大統領 尹潽善찬 행장을 수록하였다. (이것도 최부찬 행장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휘탁진 행장 최부찬 윤보선찬 2개인데 다 진실성이 없다.

- 최부찬 행장문 書頭는(麗運將訖群小得志)고려가 운이다하여 소인배들이 뜻을 얻었다.
- 윤보선찬 행장문 書頭는(麗運將訖群小弄權)고려가 운이다하여 소인배들이 권세를 얻었다.
- 행장을 지은 사람이 다르고 연차(年差)는 466년이나 되는데, 끝에서 두자(二字) 得志 - 弄權 2자만 다르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第三者一人自作이다)
- 吳仁洙씨는 以上の 진실성이 없는 두 개의 행장을 염두에 두고 1984년 봄 해주 오영환씨가 나주오씨연방세고(모필서, 철필서)를 입수하여 오씨30세계도설을 주제로 한 吳氏大宗史考를 편찬중이므로, 송은당 행장을 어떻게 논평할지 염려하여 1984.8.1. 오영환씨에게 등기 우편한 편지 5번에 小生은 특히 송은당 휘탁진공의 후손으로서 그분에 대한 행장에 상위(相違)한 내용이 족장께서 출판하실 서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경향각처의 종친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오영환씨는 1984.10.15. 발행한 吳氏大宗史考 353p 에 논평 없이 송은당 선조의 행장은 금남최부(錦南崔溥)선생이 찬하여 나주오씨 대동보 행장록에 전한다 라고만 기록하였다. (2008년 발행 나주오씨연원실록 601p참조)
- 송은당공 8世孫 挺男과 9世孫 運昌의 가장(家狀)은 1747년 정묘보부터 1941년 신사보까지 수록되었는데,
- 송은당공 본인은 정묘보부터~신사보까지 가장(家狀)도 수록하지 않았으며,
- 현손 언국(彦國)이 최부에게 가지고 간 以其家傳請狀于와 三十世系圖說 및 羅州吳氏聯芳世攷도 수록된 바 없다.
- 1964년 송은당공파는 甲辰파보를 하면서 행장을 수록했는데, 윤보선은 제6대국회(민정전국구)의원 현직이었으며, 행장문에 송은당 저서가 집에 가득했는데 전부 불타버려 전한 것이 없어 연정공(勝煥)이 문장을 모아 전하는 家狀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송은당 家狀은 없다. 윤보선 행장도 사실이 아니므로 신유대동보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 1981년 대동보에 수록한 최부찬 행장中에 『先生之所著』해동형승록2권 사행록5권을 집에 전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이 아니다. 「諱大善 유품 서책」과 대비(對比)확인하면 진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시 이 모두가 증거보전 될것이다. 필자들이 10여년동안 조작을 밝힌 《1》모필서-철필서 나주오씨연방세고(오씨30세계도설-오씨30세계도-오씨상고세계) 《2》吳氏大同譜를 조작한 장본인은 諱大善 諱炳夏 두 분이다.

- 吳仁洙씨는 이단(異端)인 구 흥룡회 원로 회원이다. 대종회는 이런 부적격자를 大宗會長으로 선출한 것은 譜學부재의 원인이요 무능하여 이단(異端)의 계략에 종복(從僕)한 것이다. ○ 조작한 오씨30세계도설을 송은당 친서라고 주장하며 한국오씨 上祖들의 제단을 만들겠다하고, 나주오씨시조를 오첨(吳瞻)이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함께 하겠다는 大宗會의 이번 행동을 보니 무엇보고 무엇을 지키라는 격이 되었다. 吳仁洙씨를 大宗會長으로 선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조와 조상의 시조가 달라도 좋다는 뜻이 아닌가?
- 정체성을 가진 후손들은 경계하라. 대종회 창립취지는 형식이었다. 1999.12.5. 창립하고 5개월후 2000.5.24.정기총회를 통해 근원연구위원회를 결성하고 6개월후 2000.12.2. 근원연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吳仁洙씨가 소장한 모필서 오씨30세계도를 근원연구 교재용으로 배포하고, 그후 연구결과를 묻지도, 듣지도, 앓고 한 달도 못된 2001.1.3. 吳億根씨 임의로 조작한 오씨30세계도를 600년 전 휘탁진께서 손수 쓰신 친서라는 내용의 인사말씀을 전국 종친들에게 우송하여 현혹시킨 일을 상기해보면 사전 계획된 대종회 창립이었음을 알것이다. (속심은 시조를 오첨으로 해주를 큰집으로 하려는 사전 계획대로 현재 진행중이다.)
- 大宗會는 구흥룡회의 下手人이다. 吳仁洙씨가 구흥룡회 취지를 찬동하기 때문에 원로 회원이 된것이고, 때문에 흥룡회지 15p에 사실이 아닌 내용 = 송은당 오탁진 조께서 1397년(조선태조6년) 3월9일 이른 새벽에 우리 오씨의 上古世系를 밝혀주는 吳氏三十世系도설을 손수 작성하여 남겨 주시고 향년 90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라고 기록하여 전하는 이런 부적격자를 대종회장으로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확정하였다. 이렇게 하수인이 된 대종회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무능한 대종회 집행부가 이대로 계속되면 나주오씨시조가, 하나는 羅州吳氏始祖諱偃派 하나는 羅州吳氏始祖吳瞻派 콩가루 씨족이 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며, 이것이 어찌 정체성을 가진 나주오씨란 말인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다. 父父 子子 人人 아비는 아버지 다워야 아버지이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자식이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 대종회 의무는 씨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올바른 세계전통이다▷.

《대종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는가》

- 吳仁洙씨는 대종회 부회장 이면서 구 흥룡회 원로 회원이다. 그리고 「中祖 吳淑珪아들을 慶延, 克中, 世得, 三형제」로 「諱卓眞아들을 始達, 仲達, 終達 三형제」로 조작한 諱大善의 三子다. 仁洙씨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목적달성을 위해 대종회 부회장과 이단인 흥룡회 원로 회원으로 양다리를 걸친 인물이다 하여 吳仁洙씨가 2001.2.11. (서울 용산) 대종회 종무회의에서 발언한 일부를 전제한다.〔내용〕 오씨

연방세고 안에 여러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자료속에 송은당공께서 남기셨다는 오씨 삼십세계도설과 오씨삼십세계도가 들어있는 것이예요. 오씨연방세고 라는 그 책 자체는 송은당공이 남기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내가 송은당공께서 쓰신 것도 안보고 송은당이 직접 남겨 놓으신 原文이 6-700년 전에 쓰셨다고 하더라도 6-700년 전에 남겨진 것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역사적인 고증을 못하는데 이것 삼십세계도만이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집에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 할때… 이하생략 (2001년 발행한 나주오씨유래 135p 참조)

- 吳仁洙씨는 2005.2.26. 대중회를 이탈한 吳億根 吳根昌 두분이 주동하여 흥룡회를 조직하고 2009.4.25.발행한 흥룡회지 15p에 사실이 아닌 조작한 내용을 사실인양 일구이언(一口二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그간 교육계에 몸담은 전직과 인격을 존중하여 적절한 시기에 현명한 판단의 처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주시하였는데 실망했다. 이제는 기대 할 것이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일을 알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세요.

- 검색어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를 클릭 하면 페이지 목록 화면이 뜬다. 오른쪽에서 시작 두 번째 「羅州吳氏族譜卷之一」를 클릭 하여 확대해보면 吳淑珪, 諱慶延, 諱良秀, 諱光佐가 있고. 다음 다음 줄에 後孫諱偃, 子季眞, 子穎達, 子愼交, 子敬祖, 子巖이 있다. 첫줄 이름자 위에 諱자를 쓴 것은 윗(上)분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대수를 모르므로 죽은사람이름 諱자를 쓴 것이고, 다음다음 줄의 名자 위에 子자를 쓴 것은 윗(上)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자 子자를 쓴 것이다.

끝장(3권)을 클릭하여 확대해보면 進士卓眞派初疊이 있고 그 옆줄에 卓眞, 子仲達, 子孟孫이 있다.

(참고, 以上은 吳淑珪 아래 諱慶延, 諱良秀 諱光佐,

進士 卓眞 아래 子仲達, 子孟孫인데. 다음을 보자)

- 이번은 페이지 목록화면 7번 吳氏大同譜를 클릭하고, 2번째 원문을 클릭 확대해보면 24世 賢輔아들 25世 淑珪아들이 慶延, 克中, 世得 三형제가 있으며, 3.4번 원문을 클릭 확대해보면 羅城君諱淑珪派初起 옆줄 淑珪아래로 30世 子卓眞 아래 子始達, 子仲達, 子終達 三형제가 있다. (우리족보 1747년 정묘보부터~1981년 대동보까지 吳淑珪 아래 諱慶延, 諱良秀, 諱光佐이고 諱卓眞아래 子仲達, 子孟孫, 子弼相이다.) 이렇게 조작한 吳氏大同譜를 누가 만들었는가?

吳氏大同譜는 약 22본관을 가진 한국오씨중 겨우 10개 본관이 모인 오씨대동종친회에서 만든 것인데, 도유사가 諱大善이요 서문도 諱大善께서 謹序하여 발행하였다. 결

론적으로 《1》[오씨삼십세계도설][오씨삼십세계도][오씨상고세계]가 들어있는 [나주 오씨연방세고(羅州吳氏聯芳世攷)] 《2》오씨대동보 등을 諱大善, 諱炳夏, 두분이 공조하여 조작하였다.

- 吳仁洙씨는 이런사실 저런내용을 다 알면서 수구여병(守口如瓶)입 다물고, 大宗會는 10여년 동안 필자들이 조작의 사실을 밝혀 왔으므로 알만치 알기 때문에 말로는 30 세계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말만하고 구 흥룡회가 자행한 韓國吳氏上祖 合同祭壇 기공식을 할 때까지 저지시킬 어떤 조치나 제재방법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조하여 오더니 끝내는 구 흥룡회와 뜻을 같이하여 나주오씨 正體와 世系를 吳瞻世系로 하겠다는 의지표명(意志表明)으로 吳仁洙씨를 대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大宗會는 누구를 위한 대종회인가? 대종회는 부적격자 오인수씨 대종회장 선출을 철회하고 종친들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나주오씨 후손 모두는 대종회 행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단의 재력에 흔들린 대종회 임원은 없었는지... 공수래 공수거 부정한 거래는 망신의 씨앗이 된다.

- 나주오씨는 불행하게도 家火로 世代를 기록하여 전해온 보록(譜錄)을 燒失하여 시조 이하(始祖以下) 상조세계(上祖世系)를 상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바꾸는 환부역조(換父易祖)하고 세계전통(世系傳統)을 까꾸로 할 수 있으므로 전국종친으로부터 편서(片書) 조각글을 걷어 모아 아는것은 아는데로 모른것은 모른대로 신중하게 현실에 입각한 丁卯譜를 편찬한 것이다.

시대가 변천하여 인륜은 무너지고 폐륜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런 데도 고향선산 유택에 잠드신 기존의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여 버리는 사람들이 남의 시조 오침를 자신들만의 시조로 삼는 것도 아니고 나주오씨 전체의 시조로 삼아 해주 오씨를 큰집으로 삼으려는 정신 나간 이단 구흥룡회와 그의 하수인이 된 대종회는 현실을 직시하라. 누구를 위한 처사인가? 대종회는 대종회 집행부 임원 몇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다. 남의 조상 섬기려 하지 말고 자신들의 조상이나 버리지 말라... 가증스럽다.

끝 맺 음

- ▣ 나주오씨 시원을 왜곡한 마지막 책 1999년 오씨득관고를 끝으로 1999.12.5. 나주오씨대종회가 창립되고 2000.5.24. 정기총회를 통해 나주오씨근원연구특별위원회를 결성했고 2000.12.2. 근원연구위원회 첫 회의시 금시초문(今時初聞)이요 初見인 모필서 "오씨 30세계도"를 복사하여 근원연구 교재용으로 배포하였는데, 그후 연구결과 합의도출 없이 2001.1.3. 근원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독단으로 신년 인사장에 나주오씨시조를

오첨(吳瞻)으로 한 내용의 인사말씀을 전국 종친에게 발송하였다. 그동안 오랜 세월 나주오씨 후손들은 족보소실로 시조가 누구인지 부지중 이었는데, 망부생환(亡父生還),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렇게 종친들을 현혹시킨 문제점의 중요한 부분이 다음의 기록들이었다. (참으로 당혹(當惑)한 일이다)

【종친들을 현혹시킨 글】

1. 나주오씨는 분명히 1500년이 넘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간 상조선조(上祖先祖)님들 세계정립(世系定立)을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 나주오씨연방세고라는 원본자료(原本資料)를 토대로 연구위원들은 상고선조(上古先祖)들을 한분한분 접근했습니다. 나주오씨연방세고(聯芳世攷)는 지금부터 약600년전 1397년 휘탁진께서 90세에 손수 창제하신 것으로써 귀중한 것입니다.
3. 정묘보에 의해 묘소가 있는 29세 휘언(諱僊)조 이후 20여조상들에게만 예를 올리고 있을뿐 1세(吳瞻)부터 28세(光佐)까지는 외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28세 諱光佐부터 위로 1世祖 諱瞻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본 우리 연구원들은 다시없는 소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오씨30세계도에 의하면 현재 洙자는 47세가 되고 根자는 48세 烈자는 49세 敎자는 50세가 됩니다.
5. 25세 숙규조(淑珪祖)는 현보의 次子로서 고종원년에 진사가 되고 몽고군의 침입에 공을 세워 금성군에 봉해진 확실한 기록이 있습니다.
6. 이를 정리하면 금성(나주)에 처음 정거(定居)하신 10세 휘방(諱昉)조는 우리 나주오씨의 시조가 되는 것이 분명함을 다짐하고 지금 우리들이 할일은 이에 대한 세계정립(世系定立)(족보하는것)이 불가피(不可避)한 사실입니다. 一世 휘첨(諱瞻)조 또한 저희 문중의 비조(鼻祖)가 되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1.1.3. 나주오씨근원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억근

- ※ 오억근씨가 이런 인사 말씀을 올리기전 30세계도를 근원연구 위원들(오항식 포함)에게 교부만 했을 뿐 上古先祖들을 한분한분 연구해 본 일도 없었고 연구 결과 보고를 받거나 들어 보지도 않고 오항식 및 연구위원들 모르게 오억근씨 임의로 인사 말씀을 보내 이것이 문제가 되어 2001.2.11. 서울 용산 역전 초원식당에서 나주오씨 대총회 종무회의시 오항식, 오성근 양인의 이의 제기로 한때 소란한 다음 오인수씨의 해명 발언이 있었는데 一口二言의 궤변만 늘어 놓았다.

- ☒ 편저인들은 이상의 기록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연구한 결과 조작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고자 2000.12.2.부터 2011.12.30.현재에 이르렀다.

【위선사와 위선자】 (爲先事와 僞善者)

- 나주오씨문중 송은당공 후손 諱 大善께서 이기적(利己的)인 사사(私事)로운 과욕(過慾)으로 1940년 전후 조작한 毛筆書 나주오씨연방세고 책자에 오씨30세계도와 1953년 조작한 鐵筆書 나주오씨연방세고 책자에 오씨상고세계를 조작한 목적의 핵심을 1962년 오씨대동보에 전재(轉載)하여 正史인양 발행하고 1969년 吳氏本源 편찬에 깊숙히 관여하여 내조상을 버렸다.
 - 三君吳氏가 上記의 조작한 2개의 나주오씨연방세고 책자를 입수하여 조작한 사실(事實)을 감지하고도 1984년 吳氏大宗史考 발행을 시작으로 이후(以後) 발행한 三君吳氏新族譜 吳氏世系에 남의조상 羅州吳氏先祖 諱富純, 多憐君, 莊和王后, 中祖淑珪를 보적침탈 하고, "吳氏得貫考" 와 "吳氏여 우리는 하나다" 라는 책 등은 그 왜곡과 조작을 치밀하게 호도하였다.
 - 편저인등은 이를 수수방관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시정(是正)하고자 많은 문헌을 발췌하여 사실을 규명 함으로, 병조참의공 휘희양(諱希亮) 종중이 이와같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동참하고 적극 후원하고 있다.
 - 上의 6책을 발행하고, 발행한 각 책을 자타(自他)문중 다수에게 증정하였다. 그리고 잔여 여분은 앞으로 구독 희망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정할 것이다.
 - ☒ 처음. 나주오씨유래 2001.8.16발행 ☒ 2차. 나주오씨유래추록 2002.1.15발행 ☒ 3차. 나주오씨연원실록 2008.10.20발행
 - ☒ 4차. 오씨유래전거집 2011.5.30발행 ☒ 5차.나주오씨 시조와 유래 2012. 2.10.발행 (인터넷에 게재한 원고)
 - ☒ 6차.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증보판) 2012.5.20.발행
- 發行處 : 나주오씨 참의공 종중

【송조의 감격】 崇祖의 感激

편저인들의 초심은 처음 나주오씨유래와 2차 추록으로 조작과 왜곡을 시정(是正)하리라 생각했는데 『2개의 나주오씨연방세고를 조작한 후손들이 대종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조작을 사실로 선동(煽動)하고, 이에 편승한 종무원장이 기안(起案)하고 성안(成案)한 해명서를 2005.6.17. 대종회장 명의로 대종회 고문과 임원전원에게 보내고, 이어서 부회장(사정공 파모인)은 대종회 해명서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편지를 전국종친 모두에게 (나주오씨연원실록 709p~725p참조) 보내어, 시정(是正)을 외면(外面)하고 사실을 전도(顛倒)하기에 급급

하였다.

그러므로 편저인들은 사필귀정의 순리로 정묘보 왜곡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조작을 바로 잡으려고 3차 4차 실록과 전거집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세거지(世居地) 고창 증(贈) 병조 참의공 휘희양(諱希亮)종중은 편저인 들의 집념을 감탄하고 부담감없이 많은 재정적 지출을 불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세대 우리 후손들이 쉬보고 알수 있도록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관리하며 겸하여 책으로 발간하기까지 5차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 인터넷 책을 발행한 것은 오직 하나, 나주오씨 본연의 정체성과 올바른 세계전통을 하기 위한 숭고한 숭조상문(崇祖尙門)의 정신이기에 편저인들은 이에 감격하였으며, 끝맺음을 하면서 그간 뜻을 같이한 종파 종친들의 뜻을 모아 편저인 등이 대신하여 병조 참의공 휘희양(諱希亮)종중 종친모두에게 심심(甚深)한 감사에 말씀을 올린다.

◎ 한 성씨의 문중은 시원상계(始原上系)로부터 분파하여 창달하고 도약하며 親愛하는 혈족의 집단이다.

그런데, 비실존인물인 "哲佐-倝"를 1981년 신유대동보에 一世로 부실 수록했고, 대종회와 흥룡회의 몇몇 사람은 吳瞻을 나주오씨 시조로 삼고자 뜻을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羅州吳氏始祖』가 누가 되든 환부역조(換父易祖)를 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후손으로서 행할 처신인가? 자성하기 바란다.

편저인 등은 나주오씨 정묘보(初譜原典) 기록보전 (本然의 正體와 世系傳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나주오씨 정묘보 기록을 인터넷에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수백년 전후사 일들을 지금 사람들의 구전언설(口傳言說)을 잘못 전해 듣는 것 보다는 수백년 전에 기록해 둔 정묘보 기록 전거(典據)가 명확하지 않겠는가? 하여 羅州吳氏와 三君吳氏가 발행한 족보(1747년~1767년) 기록을 일부전재(一部轉載)하니 귀로 잘못 듣지 말고 눈으로 직접보고 현명하게 깨우쳐 숙지(熟知)하기 바란다.

(1) 나주오씨 정묘보(1747년)는 부순, 다련군, 장화왕후, 吳淑珪가 있고, 三韓때부터 大族이라 불렸으며 나주에서 出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휘富純의 외증손자 고려혜종이 912년생인데 휘富純이 900년대 동래한 吳瞻의 10世孫이 되겠는가? (오씨유래 전거집 41p~68p 145p 참조)

(2) 보성오씨 병술보(1766년)는 부순, 다련군, 장화왕후, 吳淑珪가 없고, 吳瞻이 후한건우(後漢乾祐-947~950)때 중국으로 환국했다고 기록하고, 이후 발행한 족보의 오성약사는 신라경명왕(917~923)때 東來하여 함양에 정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씨유래전거집 103p~111p 나주오씨연원실록 465p 참조

- (3) 해주오씨 정해보(1767년)는 부순, 다련군, 장화왕후, 吳淑珪公이 없고 吳瞻이 후한건우(後漢乾祐-947~950)때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이후 1979.9.9. 서울 오씨대동종친회 「宗誌」는 신라경명왕(917~923)때 東來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씨유래전거집 103p~132 339~345p 참조
- (4) 함평오씨세계본원(국립중앙도서관발행, 발행년도미상)은 신라경명왕(917~923)때 동래하여 後漢 乾祐二年(948년)에 漢主의 청원으로 중국으로 한국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오씨유래전거집 135p~140p참조
- 해주(향파), 보성(三君) 오씨 들은 이상의 2, 3, 4 구보 기록을 번복하고 1900년대 후반에 발행한 신보(新譜)에 나주오씨선조 諱富純 多憐君 莊和王后를 吳瞻의 후예로 中祖 吳淑珪公을 賢輔의 二子로 침탈하여 吳淑珪公이 나주로 분적한 나주오씨 시조라고 왜곡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나주오씨 후손들은 해주오씨를 큰집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해주(향파) 보성(三君)오씨는 나주오씨와 발상지가
다르고 시조가 다르다. 연관성이 없다**

● **吳氏三十世系圖는 나주오씨 정체와 세계를 혼탁케 하였다.**

나주오씨족보 정묘보-경오보를 고찰(考察)해보면 『정묘보一권』 첫줄 맨 앞의 吳淑珪 諱慶延 諱良秀 諱光佐이상 세대미명이라 子字를 쓰지 않고 諱字를 썼다 했고, 『경오보一권』 첫줄 맨 앞의 中祖吳淑珪 諱慶延 諱良秀 諱光佐이상 세대미명이라 子字를 쓰지 않고 諱字를 썼다 했으며 『一世後孫偃』 방주에 ○四世이후 중간世代(偃과 光佐 사이 幾代)가 또 빠져서 後孫이라고 記錄한다 하였다. 이 글뜻(書意)은 ○諱光佐와 諱偃은父子지간이 아니다 라는 말이며 그래서 아들子字로 代를 이을 수 없으므로 『一世後孫偃』 이라고 쓴 것이다. (2011년 오씨유래전거집 57p~86p 참조)

- 지금부터 614년 前의 "吳氏三十世系圖" 가 휘탁진조 친서라면 당신의 사대봉사 (四代奉祀) 父(偃) 祖父 曾祖父 高祖父의 휘자와 생졸년, 배위, 묘소 등을 몰라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는가? 제삼자가 휘탁진조 휘자를 빌려 조작하였기 때문에 탁진조의 사대봉사 조상의 휘자도 모르고, 1940년 전후 휘탁진조 친서인양 1440년 前인 "신라지증왕 원년 서기 500년에 東來하였다" 라는 吳瞻의 방주와 그의 후손 방(昉)을 부순으로, 희(禧)를 다련군으로 휘오숙규공을 賢輔二子로 조작한 것이다.

○ 문중의 비운이 연발하여 정묘보와 경오보를 부정하고

- 사정공 壬寅파보는 얼핏 보면 정상적인 족보로 보이지만 裡面은 濁流와 같다. 羅州吳氏族譜上卷은 첫줄 中祖오숙규 휘경연 휘양수 휘광좌 이상 世代未明의 後孫 諱偃을 起一世로 世系하고 있다. 그런데도, 中祖吳淑珪를 一世祖로 子字世系하여 3世까지는 祖,子,孫이요 4,5,世는 諱字世系하여 방계손(傍系孫)으로 만들고, 子字직계혈손을 1世 中祖吳淑珪-子慶延-子良秀-子哲佐-子惲-子敬眞으로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이와 같이 파보하려는 동상이몽이다. 때문에 羅州吳氏族譜를 번복하고 起 一世後孫偃을 부정하고 一世祖中祖淑珪~敬眞으로 한 것이다.

【이심전심의 화목】(以心傳心の 和睦)

- 송은,사정 양파는 同祖同根이라고 자칭하면서 정묘보와 경오보를 부정하고 先系를 舊三譜와 다르게 파보한 것은 中祖吳淑珪 諱慶延 諱良秀 諱光佐 後孫諱偃을 起一世 中始祖로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종파와는 상호계촌(計寸)하고 호형호제(呼兄呼弟)하며 호숙호질(呼叔呼姪)하는 同祖同根 羅州吳氏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표리부동한 이중성의 화합의 외침은 구두선(口頭禪)일 뿐이다. 진정으로 화합하고 문중의 발전을 기대 한다면 辛巳譜는 부실의 온상이긴 하나 시대의 변천에 따르고 동족간의 친의(親誼)를 위해 인정(認定)할일은 인정하고 털 것은 털고 辛巳譜體制『一世 後孫偃 子 卓眞 季眞 敬眞』으로 「송은,사정」은 스스로 派譜修譜하여 先祖명 휘일원화, 世系일원화, 體制일원화를 먼저 하는 것이 최선(最善)이요 화목 하는 길이다.

編著者等은 그동안 羅州吳氏 본연의 正體性和 올바른 世系傳統을 위한 책을 출간하였을 뿐 대종회나 누구와도 대립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없다. 오직 바라는 것은 귀로 잘못 전(傳)해 듣지 말고 눈으로 직접 바로 보고 또 확인하여 올바른 세계전통을 하자고 책을 발간하여 증정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더많은 우리 종친들께서 쉬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그간 문족간 또는 동성간에 시비지단(是非之端)한 것을 증거 하는 전거(典據)들의 原文 전부를 게재(揭載)하여 보도록 하려고 하였는데, 한정된 공간이라 一部分을 게재 하였으니, 더욱 자상하게 알고 싶은 것은 2008년 나주오씨연원실록 및 2011년 오씨 유래전거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주오씨 대종회는 정묘보 왜곡을 바로 잡아야한다.》

《나주오씨 대종회는 시조를 다련군으로 정립해야한다.》

2011년 10월 일

羅州吳氏 十九世孫 吳成根・吳恒植 編著

■ 종간후기 (終刊後記)

千年由來깊은 始原과 世系傳統의 一念

吳 恒 植

(羅州吳氏 十九世)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儒賢들이 숭상한 儒學은 道德的社會의美風良俗을 바탕으로 傳承해왔다. 羅州吳氏는 千年由來깊은 뿌리의 始原을 가지고 있는데, 玉에티 門族의 한 사람이 諱季眞 諱卓眞 兄弟서차 정립을 목적으로 羅州吳氏原譜 정묘보를 번복하고 1940년 전후 나주오씨연방세고(羅州吳氏聯芳世攷)를 만들어 始原과 上系를 조작하였다. 그러므로 2001년 조작을 밝히기 위하여 나주오씨유래 발행을 시작으로 금반 인터넷에 게재한 나주오씨 시조와 유래 및 증보판 발행에 이르기까지 十一年동안에 5책을 발행하여 전국유명도서관 및 향교 전국 나주오씨종친에게 증정하였다.

그런데 나주오씨 종친들은 소수(小數)만 해독(解讀)하고 오히려 성본(姓本)이 다른 吳氏들이 구독을 희망하여 기증하였다. 원인은 불순한 목적으로 大宗會가 창립되고, 그에 따라 毛筆書연방세고를 조작하고, 鐵筆書연방세고를 공저(共著)한 후손들 多數가 대종회 집행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작을 사실로 선동하고 大宗會는 누구를 위해서인지 실록을 불온서적이라며 구독을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까지 게재한 편저인들을 저주(詛呪)하는 人事들이 大宗會에 있는 한 시정(是正)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世代가 바뀌면 그간 5책을 독해(讀解)한 현명한 후손들이 있으므로. 後日 오씨유래전거집(吳氏由來典據集)에 의하여 객관적 판단과 타당성의 사필귀정으로 나주오씨 정체성과 올바른 세계전통(世系傳統)을 수호하고 실현할 것임을 확신하며 이만 지필(止筆)한다.

2012년 5월 일

○ 나주오씨 현조

○ 봉군 (封君)

四世 = 금성군(錦城君) 휘신중(諱愼中)

五世 = 나성군(羅城君) 휘자치(諱自治)

六世 = 나원군(羅原君) 휘세훈(諱世勳)

七世 = 금양군(錦陽君) 휘 겸(諱謙)

● 四世 금성군(諱愼中)은 증(贈) 순충적덕(純忠積德) 보조공신(補祚功臣)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금성군(錦城君)

● 五世 나성군(諱自治)은 世祖丁亥(1467年) 이시애(李施愛)반란(叛亂)시 초사 겸사복(初仕兼司僕)으로 종군(從軍)하여 吉州軍中에있는 시애,시합(施愛,弟施合)을 사살 생포하여 난을 평정하였으나 초사겸사복이라 二等功臣에 책록(策錄)되고 익년(翌年) 四月에

堂上官에 오르고 七月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 封羅城君하고 증 이조판서 지의금부사 시호 양평(諡號 襄平)이라 내리고 예종조(1469年 己丑)에 백세 부조의은전(百世不祧之恩典)을 더하고 광묘(光廟 世祖廟)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였다.

- 六世 나원군(諱世勳)은 자국정(字國禎) 부평도호부사 증 의정부좌찬성 겸춘추관사 판의금부사 나원군.
 - 七世 금양군(諱謙)은 자경부, 호국제, 우호지족암(字敬夫, 號菊齋, 又號知足菴)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지경연판의금부사 춘추관사 금양군(錦陽君) 배우상 시호 정간공 (拜右相 諡號 貞簡公)
- (이하 명현달관은 생략함)

2011. 12. 1. 인터넷에 게재함

[부록 附 錄]

● 古甲子 (六甲의 판이름 - 옛적 干支의 이름)

	木.靑.東		火.赤.南		土.黃.中		金.白.西		水.黑.北	
天干 種別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爾雅	(알 闕 봉 逢)	(전 旃 몽 蒙)	(유 柔 조 兆)	(강 疆 어 圍)	(저 著 옹 雍)	(도 屠 유 維)	(상 上 장 章)	(중 重 광 光)	(현 玄 익 黻)	(소 昭 양 陽)
史記	焉逢	端蒙	游兆	疆梧	徒維	祝犁	商陽	昭陽	橫艾	尚章

地支 種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爾雅	(곤 困 돈 敦)	(적 赤 분 奮 약 若)	(섭 攝 제 提 격 格)	(단 單 알 闕)	(집 執 서 徐)	(대 大 황 荒 락 落)	(돈 敦 장 祥)	(협 協 흥 洽)	(군 涓 탄 灘)	(작 作 악 噩)	(엄 閼 무 茂)	(대 大 연 淵 헌 獻)
史記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庵茂	同
歲次	玄枵	星紀	析木	宣(大) 安(火)	壽星	鶉尾	大(鶉) 律(火)	鶉首	實沈	大梁	降婁	諏訾

● 六甲의 天干地支.

○ 西紀 年記의 天干과 끝자리 數(定數) 參考

【天干】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干數】4 5 6 7 8 9 0 1 2 3

【地支】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支數】支의 數는 天干의 循環에 變動됨.

○ 適用例記 : 西紀 2000年代를 例記함

2000년 庚辰, 2001년 辛巳, 2002년 壬午, 2003년 癸未, 2004년 甲申

庚 0 辛 1 壬 2 癸 3 甲 4

2005년 乙酉, 2006년 丙戌, 2007년 丁亥, 2008년 戊子, 2009년 己丑

乙 5 丙 6 丁 7 戊 8 己 9

2010년 庚寅, 2011년 辛卯, 2012년 壬辰, 2013년 癸巳, 2014년 甲午

庚 0 辛 1 壬 2 癸 3 甲 4

2011년 12월 1일

● 干支表 (甲子-癸亥 六十甲子の 數)

1 甲子	2 乙丑	3 丙寅	4 丁卯	5 戊辰	6 己巳	7 庚午	8 辛未	9 壬申	10 癸酉
11 甲戌	12 乙亥	13 丙子	14 丁丑	15 戊寅	16 己卯	17 庚辰	18 辛巳	19 壬午	20 癸未
21 甲申	22 乙酉	23 丙戌	24 丁亥	25 戊子	26 己丑	27 庚寅	28 辛卯	29 壬辰	30 癸巳
31 甲午	32 乙未	33 丙申	34 丁酉	35 戊戌	36 己亥	37 庚子	38 辛丑	39 壬寅	40 癸卯
41 甲辰	42 乙巳	43 丙午	44 丁未	45 戊申	46 己酉	47 庚戌	48 辛亥	49 壬子	50 癸丑
51 甲寅	52 乙卯	53 丙辰	54 丁巳	55 戊午	56 己未	57 庚申	58 辛酉	59 壬戌	60 癸亥

● 月別名 異稱一覽 (※季月=四季 各철의 끝달 즉 음력 3, 6, 9, 12)

正月 (寅) (寅→木) 東北東	元月, 端月, 泰月, 陬月, 初春, 孟春, 肇歲, 青陽, 孟陽, 正陽, 孟陬, 大簇, 月正
二月 (卯) (卯→木) 東	如月, 令月, 麗月, 大壯月, 仲春, 酣春, 仲陽, 陽中 夾鍾, 華朝, 惠風, 桃月
三月 (辰) (辰→土) 東南東	花月, 嘉月, 蠶月, 病月, 晚春, 暮春, 季春, 殿春, 載陽, 姑洗, 清明, 穀雨, 中和
四月 (巳) (巳→火) 東南	余月, 乾月, 初夏, 孟夏, 始夏, 維夏, 新夏, 立夏, 槐夏, 麥秋, 正陽, 仲呂, 小滿
五月 (午) (午→火) 正南	皋月, 梅月, 姤月, 鶉月, 雨月, 仲夏, 梅夏, 署月, 梅天, 薰風, 午月, 滿月, 蜩月, 鳴蜩, 長室, 蕤賓月, 榴月
六月 (未) (未→土) 西南	季月, 伏月, 季夏, 晚夏, 常夏, 災陽, 小署, 流月, 螢月, 林鍾月, 朝月
七月 (申) (申→金) 西南西	涼月, 冷月, 桐月, 初秋, 孟秋, 新秋, 上秋, 流火, 處暑, 瓜月, 蟬月, 相月, 棗月
八月 (酉) (酉→金) 西	桂月, 素月, 仲秋, 寒旦, 巧月, 佳月, 賁月, 南呂, 壯月, 白露
九月 (戌) (戌→土) 西北	玄月, 菊月, 詠月, 剝月, 暮秋, 殘秋, 晚秋, 高秋, 霜辰, 無射, 授衣, 季秋
十月 (亥) (亥→水) 北北西	陽月, 良月, 坤月, 初冬, 孟冬, 立冬, 小春, 小陽春, 應鍾月
十一月 (子) (子→水) 北	暢月, 辜月, 復月, 仲冬, 陽復, 南至, 黃鍾, 葭月, 至月
十二月 (丑) (丑→土) 北北東	嚴月, 臘月, 蜡月, 除月, 冰月, 涂月, 暮冬, 晚冬, 窮冬, 暮歲, 暮節, 嘉平, 大呂, 季冬. 臘梅(12월에 피는 매화)

● 年齡에 따른 別稱

年 令	別稱	읽기	說 明
10세 안팎	冲年	충년	10세 内外의 어린나이 ※冲어릴충
15세	志于學	지우학	學問에 뜻을 둠 [志學][成童]이라고도 함
"	笄年	계년	비녀꽃을 나이(女子) ※笄비녀계
20세	弱冠	약관	젊은 나이(20세전후 남자나이)
"	芳年 芳齡 妙齡	방년 방령 묘령	20세 전후의 여자의 꽃다운 나이 七七 八十
30세	而立	이립	30세에 人生觀이서다. <論語> 三十而立
30대	壯年	장년	굳센나이, 씩씩한 나이
40세	不惑	불혹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함 <論語> 不惑之年 [强仕]라고도 함
50세	知天命	지천명	自身の 분수를 앎, 하늘의 뜻을 앎 [知命]
"	艾年	애년	머리가 약썩쳐 九 희어짐 ※艾 썩애
50세 이상	艾老	애로	50세 이상의 늙은 나이
51세	望六	망육	60을 바라본다는 뜻
60세	耳順	이순	모든 것을 順理대로 理解함 [指使]라고도함
61세	環甲	환갑	10간12지가 한바퀴 돌 [回甲] [甲年]이라고도 함
"	華甲	화갑	華자는 ‘十’ 字가 6개에다 ‘一’ 이 1개 있음(61)
"	望七	망칠	70을 바라본다는 뜻

年 令	別稱	읽기	說 明
70세	古稀	고희	예로부터 드문일 두보의 시 [曲江]. [七旬] [從心]
"	七秩	칠질	秩은 10년을 뜻함 [稀壽]라고도 함
71세	望八	망팔	80을 바라본다는 뜻
77세	喜壽	희수	‘喜’字의 초서체 ‘ ’ (七+七)
80세	傘壽	산수	‘傘’字의 略字 ‘ ’ (八十)
"	耄壽	질수	극히 늙은 나이 ※ 耄 = 厖 = 80세 노인질
"	八秩	팔질	秩은 10年을 뜻함 八秩 = 80
81세	望九	망구	90을 바라보는 나이
"	半壽	반수	‘半’=八十一(81)
88세	米壽	미수	‘米’=八十八(88)
90세	卒壽	졸수	‘卒’= 九十(90)
"	齠年	예년	※齠노인이 다시날에 [齠齒]라고도 함

91세	望百	망백	百을 바라본다는 뜻
99세	白壽	백수	百에서 1회를 빼면 白 (100-1=99)
100세	期壽	기수	100년을 1期로 봄 [百壽]라고도 함
〃	期頤	기이	※ 頤 늙은이 이, 턱이
108세	茶壽	다수	茶 = ++(20) 八+八 = 108
162세	完壽	완수	81이 半壽이므로 完은 162
※	眊悼	모도	늙은이와 어린아이
			眊는 80세
			悼는 7세 아이